금수강산

1

주체104(2015)
루계 제305호 월간

 ISSN 1727-9062

고　　백

2. 그 누가 그 누가 떠밀어 이 길을 가는가
심장이 심장이 가리켜 내 찾아가는 길
그 열정에 마음이 끌려 따르는 **김정은**동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변함없을 이 마음

3.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그이의 곁에서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할 심장의 고백
그 령도에 마음이 끌려 따르는 **김정은**동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변함없을 이 마음

차　례

새해를 축하합니다

동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각 잡지 《금수강산》편집부는 조국과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새해를 맞고 계실 동포여러분께 조국인민들의 마음을 담아 따뜻한 새해 인사를 보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동포여러분은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조국과 숨결을 같이하며 민족번영의 길,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위성과학자주택지구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평양애육원과 육아원,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등 조국땅우에 일떠선 기념비적건축물들마다에는 조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뜨거운 마음이 깃들어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이 조국땅에 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왔을 때 사는 곳마다에서 핵전쟁의 불구름이 타오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반전운동을 과감히 전개하였으며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바라는 조국인민들의 투쟁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지난해 그처럼 첨예한 정세속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며 우리 조국이 강성국가건설에서 이룩한 많은 성과들속에는 여러분의 지성과 헌신적인 노력도 슴배여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진정에서 우리는 조국의 부강번영과 통일을 위한 애국의 마음을 읽었고 그 모든것을 잡지에 더 많이, 더 훌륭히 담기 위해 애써 노력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잡지에 실리여 자기의 조국과 민족을 알게 하고 더 많은 동포대중을 조직에 굳게 묶어세우며 통일애국의 길로 추동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습니다.

동포여러분, 새해 주체104(2015)년은 조선로동당창건 70돐, 조국해방 70돐, 6. 15북남공동선언발표 15돐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동포여러분, 뜻깊은 올해에 애국의 마음합쳐 자주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길에서 기쁜 일이 있어도 함께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부닥쳐도 함께 어깨겯고 헤쳐나갑시다.

우리는 믿습니다.

올해에도 여러분이 지난 기간 그러하였듯이 조국인민들과 발맞추어 부강번영하는 조국, 통일된 조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동포조직들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소식들을 본사편집부앞으로 보내주기 바랍니다.

잡지 《금수강산》이 동포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고 아울러 동포사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잡지로 되게 하고싶은것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금수강산》편집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통일애국사업과 생활을 제때에 특색있게 편집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동포여러분, 새해 우리의 취재길에서 반갑게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잡지 《금수강산》의 지면에서 다시 만납시다.

새해에도 동포여러분의 건강과 사업에서 보다 좋은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금수강산》편집부

새로 일떠선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3(2014)년 10월

감사와 충정의 마음

주체104(2015)년 새해가 밝아왔다.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조국의 기상은 더욱 억세여지고 밝아온 새해에 대한 희망과 신심이 온 강산에 차넘치고있다.

몇년째 계속되는 경제침체와 나날이 더해만가는 국가채무로 비관과 절망에 빠져 새해를 맞이하고있는것이 서방세계의 모습이다. 그러나 동방조선의 2015년의 아침은 류다른 생기와 활력에 차넘치고있다.

온 나라에 기쁨과 행복이 차넘치는 이 아침 인민의 마음은 사랑과 헌신으로 인민의 만복을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감사와 흠모의 정으로 뜨겁게 젖어들고 있다.

돌이켜보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한해동안 세련된 령도로 군대와 인민을 이끄시여 창조와 변혁의 력사를 조국땅우에 수놓으시였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이어지는 현지지도의 길, 인민의 행복을 가꾸시는 그이의 그 길은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애국헌신의 길이였다.

지난해 년초부터 인민군대에서 새로 건설한 수산물랭동시설을 돌아보신 그이께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찾고찾으신 곳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국가과학원과 평양애육원, 육아원, 새로 개건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옥류아동병원, 류경구강병원과 새로 건설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 룡문술공장과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장,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과 대동강과수종합농장,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과 기상수문국, 고산과수농장과 천리마타일공장, 천지윤활유공장과 평양양말공장…

위성과학자주택지구

건설중에도, 완공후에도 찾으시고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공장, 농장으로 되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였으며 하나의 창조물을 세워도 으뜸가는 건설물로 세우도록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신 그이이시다.

그이께서 새겨가신 자욱들마다에 생겨난 전설같은 이야기는 그 얼마인지 모른다.

인민군대에서 새로 건설한 수산물랭동시설을 찾으시여서는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대한 년간 물고기공급량이 얼마나 되겠는가를 몸소 수첩에 계산까지 해보신 사실, 국가과학원에 대한 현지지도를 마치신 길로 과학자휴양소가 일떠서게 될 연풍호를 찾으신 사연, 모든 조건이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된 세상에서 제일 좋은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육아원과 애육원을 아이들에게 마련해주시기 위해 건설현장을 찾아주신 사랑, 개건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찾으시여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호텔, 아이들의 궁전이라고, 얼마나 좋은가고,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신 이야기…

천지윤활유공장

주체비료가 쏟아지는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천리마타일공장

고산과수농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3(2014)년 7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들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선수들과 감독들을 만나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3(2014)년 10월

애오라지 인민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낮이나 밤이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로고를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생도 달게 여기시는 그이의 로고속에 나라의 재부, 인민의 재부가 나날이 늘어나고 인민의 리상과 꿈이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삼복철에 이어가신 현지지도의 길은 인민의 마음을 더더욱 뜨겁게 한다. 무섭게 내리쪼이는 뙤약볕속에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공장과 건설장을 찾으시는 그이의 모습에서 인민은 눈굽을 적시였다.

한해는 365일이지만 그이께서는 2014년의 어느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시고 인민을 위한 사랑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사람들의 생활은 로동과 휴식으로 이어진다. 세상을 둘러보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가수반이나 정부수반들에게도 휴가나 휴양계절의 날과 달이 있다. 여름철이면 피서지를 찾아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것도 례상사이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그 무더운 삼복철에도 인민을 찾아, 군인들을 찾아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였다.

뙤약볕에, 찌물쿠는 무더위에 여러 단위를 찾으신 그이의 옷깃은 땀으로 흠뻑 젖어있었으나 그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인민들과 아이들에게 더 좋은것을 안겨주게 된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은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참으로 이 땅의 날과 달들은 그이의 현지지도 소식으로 밝았고 그 소식으로 이어졌다.

그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음속에 소중히 품고계신것은 바로 인민이였고 그들의 행복을 위한 헌신의 뜻이였다.

그 길에서 그이께서는 인민을 위해 우리 나라를 세계의 상상봉에 올려세우자는것이 자신의 결심이라고 하시며 우리모두 승리를 확신하며 신심과 락관에 넘쳐 서로서로 어깨를 겯고 피와 살을 나누며 혁명을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절절히 호소하시였다.

조국이 강대해진다면, 인민이 남부럽지 않게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행복할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고싶으신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정인것이다.

그이의 헌신의 발자취가 있어 이 땅우에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르고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는 푸른 하늘가로 메아리치고있는것이 아닌가.

나날이 변모되고 흥하는 현실을 보며 이 땅의 남녀로소 누구나 기쁨을 금치 못하고 인민의 만복이 꽃펴날 천하제일강국의 그날이 결코 먼 앞날이 아니라는것을 가슴뿌듯이 체험하고있다.

뜨거운 믿음과 사랑의 세계를 펼쳐 천만을 매혹시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인민은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며 따르고있다.

하기에 지난해 군대와 인민은 그이의 구상과 의도를 순결한 애국충정으로 받들어 창조와 건설의 번영기를 펼치였다.

건설대상수나 공사규모에서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방대한것이였지만 모든 건설물들을 비상한 건설속도, 조선속도로 설계로부터 시공, 주변환경조성에 이르기까지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창조물로 건설하였다. 그 모든것은 그이의 구상과 의도를 실천으로 받드는 군대와 인민의 열화같은 애국충정이 낳은 결실이다.

세기를 주름잡아 달리는 조국의 모습을 본 해외동포들은 조국의 위력은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일심단결된데 있다, 조국은 그 위력으로 보다 휘황한 미래를

철령아래 펼쳐진 고산과수농장

제45차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우리 나라의 홍은정, 리세광선수들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녀자축구경기에서
1위를 한 녀자축구선수들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것이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도 있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조국에서는 1년도 못되는 사이에 강산이 천지개벽되고있다고 격정을 터치였다.

이 나라의 천만복은 인민을 위해 끊임없는 헌신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열정과 로고에 의해 마련되기에 그이를 받들어갈 인민들의 충정의 맹세는 새해에도 더욱 끓어번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애족의 뜻과 발걸음따라 힘찬 진군을 다그쳐나가는 군대와 인민의 드높은 충정의 맹세, 애국의 열의, 애국의 의지가 있어 조국땅에 밝아온 새해에 보다 큰 비약과 번영이 이룩될것이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온 세상을 통채로 안겨주시는 크나큰 정으로 인민을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조국은 2015년에도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할것이며 조국에는 새로운 변혁과 기적들이 펼쳐지게 될것이다.

인민의 마음속에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과 뜨거운 충정의 결의로 끓어번지는 류다른 1월이다.

본사기자 진룡진

조국번영의 새시대가 펼쳐질 희망찬 새해에 통일애국의 숨결을 더욱 높이자

조국땅우에 일대 번영기를 열어놓은 한해가 어느덧 지나가고 태양조선의 존엄과 국력이 하늘에 닿을 주체104(2015)년이 밝아왔다.

밝아오는 새해의 첫아침을 맞느라니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라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지나보낸 한해가 되새겨진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 조국인민들은 부강조국건설에서 참으로 커다란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였으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도 힘차게 벌리였다.

조국인민들이 이룩한 성과는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과학기술부문이 앞장에서 추켜든 혁신의 봉화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길로 세차게 타번진것이였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과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농장에서 농사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으며 남새와 버섯생산량을 늘여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덕을 주었다.

지난해에 건설에서도 새로운 번영기가 이룩되였다. 건설은 강성국가의 기초를 다지고 인민들의 행복의 터전을 마련하는 중요한 부문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한 군인들과 건설자들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과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연풍과학자휴양소를 비롯한 많은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건축물들을 일떠세움으로써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줄수 있게 하였다.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도 우리의 원료, 연료와 최신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생산을 추켜세우는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났다.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있는 경공업, 수산업에서 생산적앙양이 일어났으며 교육을 비롯한 문화건설에서 큰 걸음을 내짚었다. 특히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경이적인 성과를 이룩한 미더운 녀자축구선수들을 비롯한 우리 나라 선수들은 온 세상에 조선의 위력을 다시한번 보여주고 조국의 영예를 떨치였다.

온 나라에 타번진 **김정일**애국주의의 불길은 조국통일부문에서도 세차게 일어나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며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고 북남사이의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게 하였다.

더우기 나라일의 크고작은 중대사들을 돌보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떠나간 남측의 6.15관계자들과 조국통일에 공헌한 인사들을 잊지 않으시고 화환과 조전도 보내주시며 그들의 삶을 값높이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열렬한 사랑의 세계는 온 겨레의 다함없는 매혹과 흠모를 불러일으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어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조국통일위업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과 애국유산을 견결히 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가는 여기에 바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할수 있는 결정적담보가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며 나라의 통일은 오직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철저히 설 때 민족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실현할수 있습니다.》

올해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 조국해방 70돐, 6.15북남공동선언채택 15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장장 20성상의 간고한 투쟁을 벌려 일제침략자들에게 빼앗겼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 된 진정한 인민의 국가를 일떠세우시였으며 조국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드시였던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드시고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의 기적을 창조하시여 조국

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우시였다.

뜻깊은 올해에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을 초불처럼 다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과학기술의 힘, 자력갱생의 힘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조국인민들의 열의는 오늘 하늘에 닿았다.

온 겨레가 누가 보건 말건 무슨 일에나 진심을 바쳐갈 때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세기적념원을 실현하며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이 곧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이다.

우리 조국이 걸어온 창조와 건설의 년대기들에는 민족의 부강과 번영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친 수많은 해외동포들이 기록되여있다.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조국의 부강번영과 경제강국건설에 보탬이 되는 일을 너도나도 찾아할 때 조국의 발전은 그만큼 빨리 추진된다.

반세기이상이나 외세에 의하여 북과 남으로 갈라져 오래동안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는 조선민족에게 있어서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이다. 통일은 곧 애국이고 분렬은 곧 매국이다.

오늘의 정세는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누구나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정세가 엄혹하고 반통일세력의 발악적인 공세가 강화될수록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어야 한다. 북남선언들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하는것은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북남선언들은 최고의 북남관계문건으로서 그 무엇도 그우에 올려놓거나 그것을 대신할수 없다. 전민족적판도에서 북남선언들을 지지옹호하고 적극 리행하기 위한 분위기를 고조시켜야 한다. 온 겨레는 북남선언들의 리행을 외면하면서 《신뢰》와 《대화》를 떠들고있는 반통일세력의 기만적책동에 경각성을 높이고 온갖 대결기도를 철저히 분쇄해버려야 한다.

북남공동선언들에 관통되여있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철저히 구현하고 외세를 배격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을 떠나 북남관계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반공화국공조를 구걸하는것은 수치스러운 사대매국행위이다. 해내외의 각 정당, 단체들과 인민들은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뛰여넘어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아래 굳게 단결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거족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온 겨레는 외세의존과 동족대결을 추구하는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내외호전광들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 단체들이 련대련합하여 조국강토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서슴없이 몰아오는 미국과 반통일세력의 위험천만한 군사적공모결탁과 북침전쟁도발소동을 준렬히 단죄규탄하고 철저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더우기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핵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채 들어내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나가야 한다.

북남공동선언들을 고수리행하기 위한 투쟁은 겨레의 숙원을 성취하기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이며 이 투쟁에서의 승리는 조국통일의 주인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자각한 우리 민족의것이다.

겨레의 지향과 요구는 민족을 등진 자들의 롱락물이 될수 없으며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에로 나아가는 시대의 전진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 민족의 앞길을 밝히는 북남선언들이 있는 한 자주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북남선언들의 기치높이 거족적인 통일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야 할것이다.

온 민족이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통일애국의 힘을 합쳐나갈 때 조국의 통일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번영의 새시대가 펼쳐질 희망찬 새해, 뜻깊은 새해에 통일애국의 숨결을 더욱 높여 조국의 강성국가건설위업과 통일위업실현을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며 보다 큰 보폭을 짚어나가야 할것이다.

* * *

인민의 마음속에 뿌리내린 당

조국인민들은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당으로 부르고있다.

어머니당, 당이 인민들로부터 받을수 있는 값높은 부름인 이 호칭은 그 누가 지어낸것이 아니라 조국인민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온것이다. 이것은 그대로 조선로동당이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있음을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조선로동당의 정치를 통하여 잘 알수 있다.

인민의 리익을 최대로 우선시하고 거기에 모든것을 복종시켜나가는것은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정치적신조이다.

인민의 존엄과 리익을 침해하는데 대해서는 그 어떤 관용도 모르고 인민이 바란다면 돌우에도 꽃을 피우는것이 조선로동당의 정치이다. 인민들을 위해서는 타산을 앞세우지 않는 특유한 계산방법도, 인민들의 생활에 편리를 줄수 있다면 없는 규정도 만들어내고 있는 규정도 바로잡는 전설같은 이야기도 당의 정치아래 꽃펴난것이다.

당의 인민중시의 정치는 언제나 변함없이 구현되여온것으로 하여 인민들의 마음을 뜨겁게 울리고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무료교육, 무상치료제를 비롯한 인민적시책들이 일관성있게 실시되였고 나라의 곳곳에 인민을 위한 명승지들과 급양봉사기지들이 훌륭히 꾸려졌다. 최근년간에는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많은 경공업공장들이 현대적으로 건설되거나 개건되였으며 창전거리와 은하과학자거리, 릉라인민유원지,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등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이 수없이 일떠섰다. 인민의 리익속에 국가의 리익이 있고 인민의 행복속에 사회주의의 참다운 모습이 있다는것이 당의 신념이다.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것은 조선로동당의 고유한 활동방식이다.

돌이켜보면 주체34(1945)년 10월 10일 창건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인민들과 숨결을 같이하여온 조선로동당이다. 인민에게 호령하고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것을 추호도 허용하지 않으며 그 어떤 세도와 관료주의, 특전과 특혜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것이 당의 투철한 립장이다. 지난해 조국에서 창작된 노래 《내 심장의 목소리》에도 있는바와 같이 인민들이 가슴에 품은 모든 생각도, 곡절많은 운명의 사연도 당에 스스럼없이 터놓는것은 당과 인민대중사이에 맺어진 혈연적관계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언제나 인민과 함께 투쟁하는 당의 활동방식은 인민의 지지와 신뢰를 낳는 원천으로 되고있다.

인민대중에게 의거하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불러일으켜 승리를 이룩해가는것은 조선로동당의 일관한 령도원칙이다.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면 천하를 얻을수 있다는것이 당의 지론이다. 당은 혁명령도의 전기간 인민대중을 창조와 건설의 주체로 내세우고 인민의 힘을 불러일으켜 끊임없는 기적과 변혁을 이룩하여왔다. 인민의 창조적열정과 힘을 발동하여 조국땅우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하루빨리 일떠세우려는 당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당은 인민의 힘을 굳게 믿고 인민은 당을 영웅적위훈으로 받드는 여기에 조국에서의 모든 기적과 승리의 근본원천이 있다.

인민의 마음속에 뿌리내린 조선로동당, 당의 이 위대성은 수령의 위대성과 직결되여있다. 당을 창건하고 그를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오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한평생 인민의 리익과 행복을 모든 사색과 활동의 최고기준으로 삼으시고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그분들께서는 당을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으로 건설하며 모든 당조직들이 민심을 일심단결의 천하지대본으로 틀어쥐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도록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인민관은 당정책의 출발적기초로 되였으며 그분들의 인민을 위한 헌신적복무정신은 당활동의 원동력으로 되였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뜻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진두에 높이 모시고 인민의 심장속에 뿌리내린 어머니당으로서의 사명을 다해 나가고있다.

리과대학 교원 정경복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왕청문의 교훈

1929년 가을에 국민부는 흥경현 왕청문에서 동만청총과 남만청총을 통합하기 위한 대회를 소집하였다. 이 대회를 남만청총대회라고 하였다.

국민부의 지도자들은 3부의 합작이 실현된 객관적조건에 맞게 청년운동에서도 분산성을 퇴치하고 통일적인 지도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면서 두 청년단체의 통합대회소집을 발기하고 대회기간에 조선청년동맹이라는 단일조직을 내오려고 시도하였다. 그들은 대회를 통하여 청년조직들에 스며들어온 새 사조의 영향을 막고 만주일대에 있는 모든 조선청년단체들을 저들의 손아귀에 거머쥐려고 하였다.

우리는 동만청총과 남만청총과 같은 청년조직들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하고있었기때문에 이 대회에 참가하지 않아도 되였다. 그러나 대회를 국민부사람들에게만 맡겨둘수는 없었다. 남만청총과 동만청총에는 종파분자들의 영향까지 적지 않게 미쳐 그 내부가 복잡하였다. 자칫하다가는 대회를 계기로 오히려 청년운동이 더 분렬될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

우리는 대회에 주동적으로 참가하여 청년들의 분렬을 막고 청년단체대표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백산청년동맹 대표로서 남만청총대회에 참가하기로 하고 김사헌과 같이 길림을 떠났다.

김사헌은 조선혁명당회의에 참가하려고 왕청문에 가는 길이였다. 그가 나의 도중려비까지 다 대주었다. 조선혁명당은 국민부가 생겨난 다음 그 헌장에 기초하여 독립군들이 만들어낸 정당이였다. 민족주의자들은 국민부는 자치행정기관이고 조선혁명당은 민족주의진영을 통털어 지도통제하는 민족유일당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국민부의 변신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왕청문으로 곧추 가려다가 김혁, 차광수, 최창걸동무들을 만나보고싶어 그들이 활동하고있는 류하현에 잠간 들리였다.

그들이 류하일대의 반제청년동맹조직들을 늘여나가면서 일을 본때있게 하고있었다.

그때 차광수는 고산자 동성학교에 특별반을 조직해놓고 공산주의자들을 키워냈다. 겉으로는 특별반이라고 불렀지만 내적인 명칭은 사회과학연구회였다. 그 연구회에는 반제청년동맹지부가 조직되여있었다.

그들은 고산자만이 아니라 남만의 여러 농촌들을 돌아다니며 그런 형식의 연구회들을 설치하고 수많은 청년들을 교양하여 공청조직과 반제청년동맹조직들을 내왔다.

나는 현지에 가보고서야 류하에서 활동하는 동무들이 나에게 보고한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놓았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류하에서 일을 마치고 왕청문으로 떠나려는데 차광수가 나를 따라나섰다. 국민부의 상층인물들이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청년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독을 품고 은밀히 눈을 밝힌다는데 나를 혼자 보내고서는 마음을 놓지 못하겠다는것이였다. 우리가 도착하였을 때 왕청문에는 벌써 길림청년동맹, 길회청년동맹, 삼각주청년동맹 등 여러 청년조직의 대표들이 와있었다.

나는 도착하자 바람으로 현묵관을 찾아갔다.

현묵관은 국민부가 나온 후부터 길림에 있지 않고 왕청문에 와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 국민부본부가 성주에게 큰 기대를 걸고있으니 이번 대회에서 한몫 단단히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고는 회의가 끝날 때까지 다른데 숙소를 정하지 말고 자기 집에 있으면서 청년운동의 장래에 대하여 토론해보자고 하였다.

나는 현묵관의 성의를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그 청을 사양하고 나와 외가켠으로 먼 친척이 되는 강홍락이네 집에 숙소를 정하였다. 대회준비성원들이 들락날락하는 현묵관의 집은 내가 있을 형편이 못되였다.

강홍락은 민족주의좌파에 속하는 지식인으로 화흥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있었다. 화흥중학교는 동만의 대성중학교처럼 독립군들이 민족주의사상교양을 하는 학교였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민족주의교양을 해도 나오는것은 공산주의자들뿐이였다. 간판은 민족주의인데 내용은 공산주의였다.

강홍락의 처는 오신애라고 부르는 용모가 아름다운 현대풍의 녀성이였다. 노래를 잘 불러 남만지방의 조직들에서는 이름대신 《꾀꼴새》라는 별명으로 통하였다.

국민부는 대회에 앞서 각 지역에서 온 청년조직대표들로 예비회의를 열고 대회준비위원회성원들을 선출하였다. 그 위원회에 최봉을 비롯한 우리 동무들이 여러명 들어갔다. 우리는 화성의숙에 다닐 때부터 그와 낯을 익히였다. 남만청총에서 간부로 활동하던 최봉은 그때 조선인거주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많이 하였다. 그가 화성의숙에 와서도 강연을 하여 인기를 끌었다. 리론수준도 있고 일욕심도 있는 똑똑한 사람이였다. 그후 그는 우리와 가깝게 지내면서 공산주의편으로 기울어졌다.

나도 준비위원으로 뽑히였다. 준비위원회성원들은 진지하게 토의하여 누구에게나 다 접수될수 있는 대회결의안초안을 작성하였다. 그밖의 다른 문건들도 우리의 의도대로 준비하였다.

나는 왕청문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청년대표들과의 사업을 하였다. 그 첫 사업으로 화흥중학교 마당에서 청년들의 모임을 조직하였다. 여러 청년조직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기회에 낯도 익히고 그들에게 영향도 주자는것이였다. 미리 말을 해두지 않으면 그들이 국민부지도자들에게 사상적으로 롱락될수 있었다. 나는 이 모임에서 조선청년운동이 진정으로 통일을 이룩하자면 사상의지적으로 단결해야 하며 이 단결은 새로운 선진사상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런데 그 연설내용이 인차 국민부지도자들에게 알려진 모양이다. 나는 김리갑을 통하여 그들이 신경을 도사리고 나의 행동을 주시한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류하를 떠날 때 차광수가 걱정한것이 공연한 일이 아니였다.

《ㅌ. ㄷ》의 첫 성원중의 한사람인 김리갑은 화성의숙이 페교된 후 왕청문에서 얼마쯤 떨어져있는 전경숙이란 약혼녀의 집에 거처를 정하고 그 일대를 혁명화하는 사업을 하고있었다. 전개력도 있고 담도 큰 사람이여서 일을 통이 크게 잘하였다. 《반공》을 기발처럼 휘두르고있는 민족주의자들의 활동지역에서 사람들에게 공산주의바람을 불어넣는다는것이 쉬운 일이 아니였다.

김리갑은 대회에 방청으로 참가하려고 왕청문에 와있었다. 내가 화흥중학교에서 연설을 한 다음날 그는 나를 찾아와서 전경숙의 집에 저녁을 차려놓았으니 같이 가서 회포나 나누자고 하였다. 그가 나를 초청한것은 국민부의 동향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김리갑은 국민부사람들이 대회준비위원회성원들을 다 체포할 흉계를 꾸미고있다고 하였다. 그는 나더러 국민부가 손을 쓰기 전에 빨리 몸을 피하는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자기도 형편을 보고 정 곤난하면 그날 밤중으로 왕청문을 떠나겠다고 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현묵관이 국민부간부들이 다 모인 장소에서 성주도 우리와는 사상이 다른것만큼 결판을 지어야겠다고 선포했다는것이였다.

(다음호에 계속)

수 필

조국해방을 안아온 력사의 길

언제인가 나는 만경대에서 개선문까지 내처 걸어본적이 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신 만경대에서 개선문까지의 거리가 불과 수십리였지만 나는 그 길을 걸으며 그이께서 헤치신 항일혁명의 불바다만리, 혈전만리를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개선문에 도착해서는 거기에 새겨진 《1925》, 《1945》라는 년도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헤쳐오신 20년세월.

그러는 나에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14(1925)년 1월 22일 광복의 천리길을 떠나시던 때가 돌이켜졌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나는 이렇게 두해를 보내다가 창덕학교졸업을 몇달 앞둔 어느날 외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또다시 일제경찰에 체포되였다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였다. 하늘이 무너져내리는것 같았다. 나는 무서운 분노와 적개심에 휩싸였다. 칠골에서도 만경대에서도 어른들은 사색이 되여 내 얼굴만 지켜보았다.

나는 아버지의 원쑤, 우리 일가의 원쑤, 조선민족의 원쑤를 갚기 위하여 사생결단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다지고 떠날 차비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팔도구로 가시겠다고 하자 외가집에서는 가도 졸업이나 한 다음에 가라고 하였고 만경대의 할아버지도 몇달만 기다려 학교도 졸업하고 날씨도 따뜻해진 다음에 떠나라고 이르시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의 결심은 확고하시였다.

할아버님께서는 그럼 결심대로 하라면서 아버지가 감옥에 갇힌 몸이 되였으니 이제는 네가 나설 차례라고 격려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의 원쑤를 갚는 그 길에서 억천만번 죽더라도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결연히 결심하시였다.

조국의 가슴아픈 모습이 안겨드는 만경대의 나지막한 언덕길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온 가족의 배웅을 받으시며 그이께서는 인사를 올리시였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디 편안히 계십시오.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나라를 찾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

어설픈 빽빽이차의 처량한 기적소리를 들으시며 개천까지 오신 그이께서는 그때부터 내내 걸으시였다. 모진 칼바람이 휩쓸고 험산준령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그 무엇도 그이의 신념과 의지를 꺾을수 없었다. 그 길에서 그이께서는 헐벗고 굶주리는 인민들의 고달픈 한숨소리와 나라잃은 겨레의 신음소리를 들으시였다.

그것은 그이의 가슴속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비장한 맹세를 더욱 굳게 새겨주었다.

하지만 조국을 찾는 길은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길이였다.

그 길에는 아버님과 어머님을 잃은 피눈물의 날도 있었고 굳어진 전우들의 가슴우에 뜨거운 눈물을 쏟은 가슴아픈 날도 있었다.

그뿐이 아니였다.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와의 결전에서 뒤따르는 위험과 어려운 고비는 또 그 얼마였던가.

돌이켜볼수록 우리 수령님께서 걸으신 눈보라만리, 혈전만리가 생생히 어려왔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그 모든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시며 끝끝내 조국을 해방하시였으며 조국개선의 길에 오르시였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만경대의 나지막한 언덕우에 찍으신 그 발자취가 조선혁명의 첫걸음이였다.

그 첫걸음이 찍힌 력사의 그 길, 광복의 천리길이 있어 우리 인민은 식민지노예의 운명으로부터 자주적인간으로 이 세상에 우뚝 올라선것이 아니겠는가.

진정 그 길이 있어 간고한 항일대전의 승리도,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도 성취될수 있었으며 가렬처절한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도, 전후복구건설, 사회주의건설도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었으리라.

나라길시작점에서 이 나라의 길들이 시작된다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싶다.

광복의 천리길, 이 길에서 혁명의 천만리길, 아니 행복의 만리길이 시작되였다고.

조국이 해방되여 70년이 되였지만 오늘도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대오는 백두산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기며 보무당당히 행진해가고있다.

리동규

독점지표개발에로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조국의 많은 수산물생산가공기지들가운데는 동해지구의 갈마식료공장도 있다.

이 공장은 명란젓, 창난젓, 말린명태, 말린낙지를 비롯한 여러가지 수산물가공품을 생산하는 물고기가공기지이다.

크지 않은 부지면적에 들어앉은 공장의 산뜻한 건물들은 외벽타일의 색갈과 장식부터가 수산물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식료공장의 특성을 잘 살리고있다.

공장에는 종합조종실, 1차가공실, 선별포장실 등이 있다.

경영활동의 정보화, 콤퓨터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물고기가공으로부터 운반, 포장에 이르는 모든 생산공정이 흐름식으로 꾸려진 생산현장은 흠잡을데 없다.

공장에서는 원료보장체계를 바로세우는 문제, 제품의 질과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공장관리운영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공장지배인 김기철은 말하였다.

《공장에서는 맛과 질에 있어서 인민들속에서 호평을 받을수 있는 제품, 공장을 대표할수 있는 독점지표를 개발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기업전략, 경영전략의 중심으로 내세운 결과 좋은 성과를 이룩하고있습니다.》

공장의 일군들은 독점지표를 정하고 제품의 특성에 맞게 수산물가공품의 기본지표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로 기술자들

과 로동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기술준비실의 기술자들이 자기의 책임감을 자각하고 분발하고있다. 그들의 노력에 의해 말린수산물가공품생산의 핵심설비인 승화건조로에서 제품종류에 따르는 기술지표들을 확정하기 위한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그들은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바쳐가며 명태건조때 승화건조로의 진공압력과 단계별온도를 구체적으로 확정한데 기초하여 집체적토의를 거듭하고 부단한 시험조작을 진행함으로써 낙지건조때의 기술지표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였으며 생산정상화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와 함께 그들은 현장로동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며 설비들의 기술적특성을 개선하고 수산물가공에서 지켜야 할 표준조작법들을 현장실정에 맞게 끊임없이 완성하고있다.

가공, 포장작업반의 종업원들도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할 독점지표개발사업을 자기자신의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떨쳐나서고있다. 자기 기대, 자기 설비에 하루빨리 정통하고 표준조작법을 익히기 위한 기술학습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이 부쩍 오르고있다.

공장일군들은 해당 부문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종업원들의 수산물가공지식을 높여주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과학기술지식보급실을 최상의 수준에서 꾸리고 정상화되도록 자신들부터가 이 사업에 앞장서고있다.

공장의 기술자들은 공장의 실정에 맞게 생산의 정보화수준을 더욱 높여나가고있다.

질과 위생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 공장의 제품들은 인민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지금 공장의 종업원들은 이룩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새로운 독점지표개발에로 부단히 도전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민족의 정통무도 태권도

태권도는 우리 민족의 정통무도이다.

조국에서는 남녀로소가 태권도를 대중화, 생활화하고있으며 세계 각국에서도 태권도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있다.

태권도의 발상지로 이름높은 아름다운 평양에는 국내외 도인들의 활무대로 일컫는 태권도전당과 태권도성지관이 우뚝 서있다.

태권도모국의 력사를 자랑하는듯 청춘거리 체육촌에 조선식합각지붕을 떠이고 틀지게 들어앉은 태권도전당과 태권도성지관은 도인들을 언제나 반겨맞아주고있다.

태권도전당은 20여년의 력사를 가지고있다.

주체81(1992)년 9월에 개관된 태권도전당은 기본건물과 여러개의 부속건물들로 이루어져있다.

건축면적 7 000여㎡에 근 18 000㎡의 연 건축면적을 가진 이곳에는 도인들의 훈련과 경기에 필요한 여러가지 조건이 충분히 마련되여있다.

국제태권도련맹 초대총재였던 최홍희선생은 이렇게 말한바 있다.

《태권도라는 간단한 글자를 만들어놓고 이 세상에 약한 소리를 웨칠 때 즐겁기도 하면서 암담한 생각도 들었다. 지난 35년간 나는 집에 있는 시간이 얼마 없었다. 나의 대부분 인생은 비행기에서 보냈다고 말할수 있다.

가방을 바꾸기 위해서 들리는 집은 카나다에 있고 사는 집은 하늘에 있었다. 나의 이름도 하나는 최홍희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태권도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이름과 집은 길 떠난 나그네의 신세를 면치 못하여 풍파속에서 사라져버렸다.

나는 오늘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나의 이름인 태권도를 다시 찾고 그 어느 왕궁과도 대비조차 할수 없는 나의 집인 태권도전당을 받아안았다.》

이것은 제9차 국제태권도련맹총회에서 최홍희선생이 한 연설의 한 대목이다.

최홍희총재의 말그대로 태권도전당은 도인들모두의 정든 집이고 광활한 무대이다.

지난 기간 태권도전당에서 진행된 국내, 국제경기대회들만 하여도 손에 꼽지 못할 정도이며 태권도영웅도, 세계적인 태권도강자들도 다 이곳에서 훈련하고 경기를 치르었다.

도인들은 이곳에서 훈련과 경기를 진행할 때마다 태권도를 인류공동의 재부로, 세계무도의 본보기로 더욱 빛내여갈 열의에 넘쳐있다.

인민체육인 사옥진은 이렇게 말하였다.

《태권도를 처음 배우던 소녀시절부터 태권도전당은 나의 집이였다. 우리 선수들의 생활은 태권도전당에서 흘러간다. 우리는 실패의 눈물도 승리의 웃음도 이곳에서 맛보며 태권도를 수련한다. 때문에 우리는 태권도전당을 도인들의 꿈과 리상이 꽃펴나는 활무대라고도 말하고있다.》

태권도전당에서는 여러 국제, 국내경기들이 진행된다.

태권도전당에서는 많은 국제경기들이 진행되고있다. 그리고 해마다 만경대상전국무도선수권대회, 정일봉상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 전승컵전국태권도강자경기대회, 전국태권도기술혁신경기 등 국내경기들이 진행되고있다.

국내경기들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선수들은 국가팀 선수로 선출된다.

그들은 경기를 주동적으로 할수 있도록 육체적준비를 철저히 갖추며 고급난도동작에 의한 공격기술들을 보다 숙련하고 완성하여 국제경기들마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있다. 태권도선수들은 지난 기간 근 40차의 국제경기에 참가하여 150여개의 컵과 600여개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태권도전당과 처마를 잇고 웅장하게 서있는 태권도성지관도 도인들의 또 하나의 활무대로 되고있다.

주체101(2012)년 4월, 태권도성지관은 개관되자마자 국내외 도인들과 애호가들의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곳에는 태권도의 력사와 유래, 그 기원과 력사적뿌리, 태권도가 걸어온 자랑찬 력사적행적을 자료들과 함께 보여주는 태권도력사관과 태권도를 배울것을 지향하는 세계의 태권도애호

태권도성지관에서는 토론회들과 기술전습도 진행한다.

가들과 선수들의 수련을 보장하는 육체훈련관, 태권도지식보급실, 과학연구소가 있다.

태권도력사관에는 단군시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태권도발전력사를 실감있게 보여주는 자료들이 수많이 전시되여 있다.

조선민족의 원시조인 단군의 초상과 기백있는 무술장면들이 그려진 천년강국 고구려시기의 무덤벽화들과 첫 통일국가인 고려시기의 무술력사를 보여주는 자료들은 조선민족이 얼마나 슬기롭고 용맹한 민족인가 하는것을 잘 알게 하여준다.

나라를 일제에게 빼앗기고 민족의 정통무도까지 무참히 짓밟혀 몸부림치던 식민지무도인들의 모습을 형상한 그림은 아무리 슬기롭고 우수하고 용감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주고 꽃피워줄 위인을 모시지 못하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오늘날 힘있고 존엄높은 국제적인 무도조직으로 발전된 국제태권도련맹의 력사를 돌이켜보느라면 백두산절세위인들이시야말로 민족의 정통무도를 내세워주시고 빛내여주신 위대한 어버이, 절세의 애국자들이시라는것을 가슴깊이 느낄수 있다.

건물의 중심에 위치한 다기능홀에서는 태권도선수들의 시범출연이 자주 진행되군 한다.

태권도성지관에는 현대적인 육체훈련기재들이 그쯘하게 갖추어진 육체훈련관과 두개의 넓고 시원한 훈련관들도 있는데 그곳에서는 도인들의 훈련이 맹렬하게 진행되고있다.

한쪽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팔힘과 다리힘을 키우고있는가 하면 다른쪽에서는 하나의 동작에도 힘을 넣으며 틀동작을 숙련하고 재치있으면서도 정확한 타격을 안기며 맞서기훈련을 하고있는 외국인수련생들도 볼수 있다.

강사 류선화는 《태권도성지관의 사명은 태권도를 우리 인민들과 세계에 널리 선전하고 광범히 보급하며 과학적으로 더욱 발전시키는데 있다.》고 말하였다.

조선의 태권도사범들의 보급활동으로 하여 국제태권도련맹안에는 세계도처에 수많이 조직된 태권도민족협회들이 있다. 련맹은 120여개의 가입성원국에 6 000여만명을 헤아리는 외국인수련생들을 거느리고있다.

오늘 국제태권도련맹은 자기 사업의 옳바른 전략전술을 가지고 수천만 태권도인들의 열렬한 지지와 공감을 받으며 승승장구하고있다.

도인들의 활무대인 태권도전당과 태권도성지관을 통하여서도 국제태권도련맹이 세계적으로 공인된 국제무도기구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나가고있다는것을 어렵지 않게 가늠할수 있다.

올해는 태권도가 명명된 60돐을 맞이하는 해이다. 평양에서는 국제태권도련맹총회와 제19차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열리게 된다.

이를 계기로 태권도모국인 조국에서 태권도에 대한 열의가 더욱 높아지고있다.

나라의 교육정책에 따라 조국에서는 학생소년들에게 12년제 의무교육기간에 태권도 1단을 소유할수 있는 기술을 배워주고있다.

전국의 소학교와 중학교들에는 실정에 맞게 태권도소조가 운영되고있으며 소조원이 아닌 학생들도 과외체육과정안에 따라 태권도를 배우고있다.

태권도전문화교육체계도 더욱 세련되여 해마다 수많은 선수후비들이 자라나고있다.

태권도가 생활의 한부분으로 되고있는 조국의 시간은 도인들의 활동으로 하여 더욱 흥미진진하며 즐겁게 흘러가고있다.

사람들은 아침운동시간이나 로동후 휴식시간과 여가시간들마다에 태권도를 하면서 머리를 식히기도 하는데 조국에서는 그것을 건강태권도라고 부르며 더욱 장려하고있다.

국가의 정무원들로부터 로동자, 농민, 대학생, 청소년학생 등 부류별로 진행하는 전국적인 체육경기대회와 해마다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는 전국도대항군중체육경기대회에도 태권도가 경기종목으로 되여 대중화열의를 높여주고있다.

비옥한 토양에 뿌리를 박고 억센 거목으로 자라난 민족의 정통무도 태권도,

세계무도의 한복판에서 그 이름 빛나는 조선의 태권도는 자기의 눈부신 발전을 변함없이 이룩해나갈것이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김 평

태권도는 우리 인민들의 대중체육종목의 하나이다.

과학기술성과와 조국의 래일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책임부원 한성철과 본사기자의 대담 -

기자: 지적제품전시장에서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만난 기회에 나라의 과학기술분야에서 이룩된 성과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한성철: 좋습니다. 오늘 조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며 모든 부문을 과학화하여 과학기술강국, 지식경제강국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습니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가 도달한 과학기술수준을 최단기간에 뛰여넘어 지식경제시대의 맨 앞장에 설데 대한 최첨단돌파사상과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내놓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어 온 나라에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이 곧 사회주의강성국가라는 고전적정식화를 내놓으시고 새 세기 산업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과학기술혁명이라는 해명을 주시고 과학기술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으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이끌어나가는 기관차로 내세우시였습니다.

기자: 지난 기간 과학기술분야에서 이룩된 귀중한 성과와 경험들은 강성국가건설을 적극 추동하고있다고 봅니다.

한성철: 그렇습니다.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고심어린 연구와 노력에 의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사업에서는 획기적인 전환이 이룩되였습니다.

주체철생산토대가 마련되고 주체섬유와 주체비료, 우리 식의 마그네샤크링카와 타일생산기지들이 거창한 규모로 일떠서 생산활성화의 동음을 울리였으며 초고전력전기로와 대형산소분리기, 지열설비, 레루맞댐용접기, 순환비등층보이라와 같은 수많은 성능높은 기계설비와 장치들이 개발도입되고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의 중요생산공정과 설비들의 기술장비수준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습니다.

기자: 그뿐만아닙니다. 기업관리와 경영관리의 정보화가 적극 추진되고 콤퓨터기술과 정보통신기술에 기초한 원격교육체계와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구축되여 활발히 운영되고있으며 여러가지 다수확농작물품종들의 육종과 효능높은 유기질비료와 생물농약들이 개발도입되였으며 인민소비품생산기지들을 실리가 나게 꾸려 인민생활을 높일수 있는 과학기술적담보가 마련되였습니다.

국가과학원과 농업과학원,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기계대학을 비롯한 과학연구기관들과 대학들의 수많은 과학자들이 들끓는 현장들에 달려나가 인민경제 중요부문의 기술개건을 다그치고 생산을 활성화하는데서 나서는 절실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경제강국건설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한성철: 옳습니다.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첨단기술분야들을 개척해나가고있는데 그가운데서도 20, 30대의 청년과학자들은 세계적인 두뇌경쟁의 마당으로 되고있는 소립자물리학과 우주론연구에 대담하게 뛰여들어 조선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떨치였으며 카오스프락탈리론과 고온초전도현상의 물림새해명을 비롯하여 국제학계가 미해명문제로 제기하고있는 과학리론적문제들을 남먼저 해결하였습니다.

지난해 2월 2. 16과학기술상을 수여받은 재미동포 오인동선생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속에서도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는 과학기술성과들을 내놓아 인민들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기자: 지난 기간 이룩한 성과도 크지만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쳐나가기 위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해결하여야 할 과학기술적문제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성철: 예, 인민들의 먹는 문제해결을 위해 농업생산을 과학화, 집약화하는 문제와 다수확품종의 종자와 재배문제, 축산과 과수업, 수산업을 발전시키는 문제가 절실한 과제로 나서고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긴장한 에네르기문제를 풀기 위하

첨단기계제품개발을 위해

국가과학원 기계공학연구소에서 첨단기계제품들을 우리 식으로 연구개발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도입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기계설비의 국산화비중을 더욱 높여 생산공정의 현대화와 생산정상화를 실현해나가자, 이것이 오늘 그들이 들고나가고있는 구호이다.

지난 기간 그들은 피스톤식무주유압축기용 수지흑연복합기밀고리와 시추용금강석추환 등을 개발생산하여 화학공장들의 생산정상화와 지질탐사사업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들이 만든 제품들은 질지표에서 수입산제품들을 릉가하고 가격이 눅어 해당 부문 일군들과 로동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으며 그 수요는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더우기 그들은 첨단기계제품을 국산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지난해에만도 생물미세조작기, 도람통자동마개막이로보트, 식료가공기계와 원심분리기를 비롯한 많은 제품들을 개발생산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주었다.

그가운데서도 이곳 과학자들이 로동계급과 힘을 합쳐 새로 개발한 6MN콤퓨터조종수평관압출프레스는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강한 민족적자존심과 배짱으로 개발한 국산화된 기계이다.

측정실에서

이 수평관압출프레스가 도입되여 현장의 생산공정이 현대화됨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는데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리용되고있는 수입산 수평관압출프레스들의 대부분은 변형성이 좋은 알루미니움으로 된 유색금속형소재를 압출하는 프레스들로서 경질유색금속관소재는 압출하지 못하였다.

이런것으로 하여 경질유색금속관소재를 쓰는 현장에서는 환봉소재에 드릴로 구멍을 내는 방법으로 관소재를 생산하여 리용해왔다. 결과 소재생산에 자재와 로력이 많이 들고 생산량도 늘일수 없었다.

실장 부교수 리창기를 비롯한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현실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이 수평관압출프레스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기어이 개발할것을 결심하고 연구사업에 달라붙었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해보는 연구사업인것으로 하여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도 많고 그 제작에서도 수많은 애로와 난관이 겹쳐들었다.

새로 개발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그러나 과학자들은 현장로동자들과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결사관철의 의지로 수평관압출프레스개발을 다그쳐나갔다.

소장 교수 박사 최용호를 비롯한 일군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째인 조직사업밑에 압착가공연구집단과 유압공학연구집단을 비롯한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과학적인 타산과 계산자료에 기초하여 기존설계방식과는 달리 예비응력식구조로 프레스의 틀을 설계하고 유압장치와 프레스를 조종하고 제작하는데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어려운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그리하여 1년반이라는 짧은 기간에 세계선진수준의 6MN콤퓨터조종수평관압출프레스를 개발제작하는데 성공하였다.

우리 식으로 개발된 수평관압출프레스는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개발운영되고있는 같은 종류의 프레스와는 달리 힘받이요소들의 구조가 보다 합리적으로 선정되고 기둥이 예비응력구조물로 제작된것으로 하여 프레스의 전체 질량이 작고 강성과 작업안내정밀도가 훨씬 높을뿐아니라 관압출공정을 콤퓨터로 자동시조종할수 있게 되여있다.

이 수평관압출프레스를 듀랄루민관소재생산에 도입한 결과 금속실수률은 종전생산방법의 62%로부터 92%로, 생산성은 2.5배로 올라가고 로력은 60% 절약되였으며 제품의 질도 훨씬 높아졌다.

부소장 백천호는 말하였다.

《우리는 수평관압출프레스를 개발함으로써 국가에 많은 리익을 주고 앞으로 이러한 류형의 관압출프레스를 자체로 개발할수 있는 과학기술적토대와 경험을 축적하였다. 강한 민족적자존심과 배짱을 가지고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 설비와 자재의 국산화비중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확신성있게 벌려나갈 때 그 어떤 첨단설비도 능히 개발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글 본사기자 한신애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여 현존발전소들의 발전능력을 높이는 문제, 에네르기소비를 낮추고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개발리용하며 핵동력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는 문제 등을 풀수 있는 과학연구가 심화되여야 합니다.

보다 중요한것은 첨단기술분야를 세계적수준으로 당당히 올려세우고 첨단산업을 창설하여 새 세기 지식경제강국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나가는것입니다.

조국에서는 정보, 나노, 생물공학부문을 최첨단돌파전의 앞장에 세우고 첨단과학기술분야의 성과에 기초하여 첨단산업을 발전시키고있습니다.

은정과학지구를 비롯한 과학기술력량이 집중되여있는 지구들에 첨단과학기술개발구들을 창설하고 그것을 본보기로 하여 나라의 경제전반을 지식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국가적대책이 세워지고있습니다.

우리 과학, 기술자들은 앞으로도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조국의 밝은 래일을 높은 과학기술성과로 담보해나갈것입니다.

기자: 오늘 좋은 이야기를 나누어주어 감사합니다.

* * *

상 식

모세피줄을 강하게 해주는 메밀

마른 메밀국수에는 약 30%의 루틴이 들어있다.

이몸피나기,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모세피줄에서 피가 나오는 등 비타민 C의 결핍증과 관련된 여러가지 증상을 연구하는 과정에 비타민 C와 비슷한 또 하나의 물질이 있다는것을 발견하고 그 물질의 이름을 루틴 또는 비타민 P라고 이름지었다. 루틴에는 모세피줄의 결합조직을 든든하게 하는 성분이 있으므로 루틴은 뇌출혈이나 출혈성질병을 예방하는 작용을 한다. 루틴은 혈압을 낮추는 작용도 한다.

루틴은 조직세포사이의 결합물질인 콜라겐을 합성하는 비타민 C와 섞어쓰면 심장, 피줄계통을 든든하게 할수 있다.

* * *

무상치료제의 혜택이 더 잘 미치도록

오늘 조국의 의료일군들은 전반적이고도 완전한 무상치료제의 혜택이 인민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기 위하여 정성을 다해가고있다.

우리는 얼마전 환자치료에서 성과를 보고있는 평양시 서성구역인민병원을 찾았다.

깨끗하게 꾸려진 병원의 구석구석에는 환자들을 위해 전심하는 병원의료일군들의 마음이 그대로 어려있었다.

병원의 면모를 살펴보는데 원장 리광일이 얼굴에 웃음을 담으며 평양에 중앙병원들이 많은데 구역인민병원을 다 찾아왔다고 겸손어린 말로 우리를 맞이하였다.

그의 말을 들으며 우리가 이른 곳은 약국이였다.

약국장 김경학은 국가에서 받는 약뿐만아니라 자체로 약초밭을 조성하고 거기서 나오는 약초들로 고려약을 만들어 환자치료에 리용하고있다고 하였다.

입원실에서

서성구역 상흥동에 살고있는 최옥미는 《배아픔이 계속되여 오래동안 항생제를 비롯한 신약을 쓰군 하였다. 신약을 오래 쓰니 부작용이 오고 항생제내성도 생기였다. 그런데 구역인민병원에서 만든 고려약을 쓰면서부터 그런 현상이 없어졌다.》고 우리에게 말하였다.

병원에서 기쁨의 미소를 짓는 환자들의 모습은 기능회복치료실에서도 볼수 있었다.

안과와 기능회복치료실에서 환자치료에 정성을 다하고있다.

긴재동 42인민반에 사는 김진룡은 추간판탈출증으로 고생하다가 약물치료와 저주파치료, 먼적외선치료를 결합한 전기침치료를 받고 나아졌다며 환자들을 위해 바치는 의료일군들의 뜨거운 마음을 널리 소개해달라고 하였다.

우리가 다음과로 걸음을 옮기려는데 치료를 받고 가던 서평양무궤도전차사업소 로동자 한정학이 우리의 팔을 잡았다. 그는 자기가 이렇게 대지를 활보하게 된데는 특발성괴저치료과 의료일군들의 뜨거운 정성이 깃들어있다며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었다.

폐쇄성동맥내막염인 특발성괴저는 난치의 질병이다. 이 병은 극심한 동통과 괴사제거를 위한 사지절단률이 많아 로동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이 치료과에서는 환자들에게 심한 고통을 주며 로동능력상실과 불페질률이 높은 질병으로 알려진 특발성괴저를 능히 고쳐낼수 있는 과학적토대를 마련하였다.

과장 정금식, 의사 서재경들은 특발성괴저질병에 대한 세계적인 치료추이와 고려의학의 전통적인 비방과 치료증례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하여 치료방도를 세웠다.

또한 여러차례의 동물실험을 거쳐 줄기세포이식술에 의한 치료방법을 완성하여 동통과 괴사를 막고 사지절단률을 줄이게 되였다.

이들의 성과는 전국에 소문이 나게 되였다.

병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아픔없이 잘 지내고있다고 병원으로 걸려오는 전화와 편지는 끊길새 없다.

이 치료과뿐만아니였다.

산부인과, 안과, 구강과 등 병원의 모든 과들의 창가들마다에는 환자들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의료일군들의 모습이 비껴흐르고있었다.

병원을 나서는 우리의 생각은 깊어졌다.

그것은 무상치료의 보건제도아래 인민들의 건강관리와 예방치료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는 크지 않은 병원, 바로 여기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진면모가 그대로 펼쳐져있었기때문이였다.

글 본사기자 안철룡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조선속담 (나약성, 무기력)

-두부살에 바늘뼈

두부와 같이 물렁물렁한 살결에 바늘과 같이 가는 뼈라는 뜻으로 몸시 허약하여 조금만 아파도 엄살부리는 사람을 놀려서 이르는 말.

참고: 바늘뼈에 두부살

-술과 안주를 보면 맹세도 잊는다

술군이 다시는 안마시겠다고 맹세는 여러번 하면서도 술을 보고서는 맹세를 잊고 다시 마시는것과 같이 다시는 안하겠다고 맹세를 다지고서도 조건이 지어지면 맹세를 저버리는 사람을 비겨이르는 말.

-조개속의 게

연약하고 혈색이 좋지 않으며 기력이 없는 사람을 비겨이르는 말.

-풀솜에 싸 길렀나

몸이 매우 약하거나 의지가 굳지 못한 사람을 두고 롱으로 이르는 말.

-열흘길 하루도 아니 가서 돌아선다

사업의 첫시작에서 포기하는 나약한 행동을 이르는 말.

-다리아래소리

남에게 머리를 숙이고 비굴하게 비라리를 하는 소리를 이르는 말.

-돈 한푼 쥐면 손에서 땀이 난다

돈만을 끔찍이 알고 벌벌 떨면서 돈에 눈이 어두워진 비루한 꼴을 비겨이르는 말.

-물밖에 난 룡이 개미한테 물어뜯긴다

지난날에: 아무리 힘이 센 존재라도 자기의 생활조건을 떠나서는 무력하다는것을 비겨이르던 말.

-물없는 기러기

지난날에: 의지할 곳이 없어 힘과 능력을 발휘할수 없게 된 처지를 비겨이르던 말.

* * *

수업이 끝난후

수업이 끝난후 학생들의 오후생활은 어떻게 흘러갈가?

평양시 락랑구역 승리소학교 학생들의 생활을 지면에 담아본다.

축구소조에서

《람홍색공화국기발을 펄펄 휘날리고싶다》

《락랑-승리》라는 글발이 새겨진 운동복을 입은 축구학급 학생들은 넓은 운동장을 맘껏 뛰고있다.

률동에 의한 몸풀이, 유희를 배합한 축구기초훈련은 학생들이 오전수업의 부담을 털어버리도록 온몸을 거뜬하게 해주고있다.

축구학급 지도교원 오덕철은 《1, 2학년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축구에 인차 취미를 붙일수 있도록 유희를 배합한 축구기초교육에 힘을 넣고있으며 3, 4학년단계에서는 학생들이 특기기술을 소유하도록 하고있다.》고 말하였다.

머리가 좋고 속도가 빠른 학생들을 선발하여 그들의 개성적특기를 살려주고있는 교원의 노력에 의하여 2학년 남자축구주장인 리주성과 오장은학생들은 머리받기와 중장거리차넣기기술을 적극 살려나가고있다.

3, 4학년 녀자축구주장들인 홍현아, 김선애학생들은 정황에 대한 처리능력이 높고 공다루기가 뛰여난것으로 하여 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과외소조활동을 더 잘하기 위해

이 학교학생들은 주체98(2009)년, 주체99(2010)년, 주체100(2011)년에 진행한 평양시 소학교부문 축구경기대회에서 련이어 녀자축구 1등을 한 전적을 가지고있다.

《저도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녀자축구경기에서 1등을 한 언니들처럼 국제무대에 우리의 람홍색공화국기발을 펄펄 휘날리고싶다.》고 김선애학생은 말하였다.

체육강국을 지향해나가는 조국의 현실은 어린 학생들의 마음속에 람홍색공화국기발을 먼저 새겨주고있는듯싶다.

운동장은 비록 크지 않아도 거기서 래일의 금메달을 꿈꾸는 학생들의 고운 꿈이 자라고있다.

《시간이 가는줄 모르겠다》

학생들의 고운 꿈은 운동장에서만 아니라 성악, 바이올린, 체육무용, 태권도소조실들에서도 봄싹처럼 움트고있다.

바이올린소조 지도교원 채란영은 《소학교 학생들의 음악에 대한 감각과 반응은 매우 예민하고 즉흥적이다. 그들의 장점을 적극 살려 다재다능한 인재로 키워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였다.

바이올린소조학생들의 음감은 매우 뛰여났다. 그들은 힘든 7화음도 척척 알아맞혔고 위치이동과 활장악으로 독주곡들도 원만히 연주하였다.

전국적으로 진행된 예술축전과 텔레비죤재간둥이무대에서 독주곡 《즐거운 무도곡》, 《우리 엄마 기쁘게 한번 웃으면》, 중주곡 《고마운 해님》을 훌륭하게 연주한 안진아, 원경서, 김진혁, 구평, 최봄학생들은 공부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모범이다.

성악소조학생들은 소리기초훈련에 힘을 넣고있다. 4학년의 쌍둥이들인 리지향, 리신향학생들은 《하루공부를 마치고 노래공부를 하다나면 언제 시간이 가는줄 모르겠다. 노래를 하면 머리가 거뜬해지고 풀리지 않던 수학문제도 척척 풀려나간다. 어서 빨리 커서 인민의 사랑받는 모란봉악단 성악배우가 되고싶다.》고 자랑기어린 목소리로 말하였다.

4학년 9반의 김일주학생은 성악훈련을 하다가 휴식을 할 때면 기타도 배운다고 하면서 너무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점차적으로 모든 악기들에 정통해나가겠다고 하였다.

재능을 키워가는 학생들

무엇인가 새것을 배우고 숙련해나가려는 학생들의 모습은 체육무용, 민족의 정통무도인 태권도소조실들에서도 볼수 있다.

이 학교는 주체98(2009)년 5월 2중모범체육학교칭호를 받았다.

학교교장 정영수는 《조국의 미래는 학교에서부터 준비된다. 우리는 학생들의 과외활동을 더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게 조직하기 위해 교육자된 본분을 다해나가겠다.》고 긍지에 넘쳐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새해를 맞으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

환희속에 맞는 새해

양력설을 맞으며 스승을 찾은 제자들 (↑)
평양축하장기념품상점에서 (←)

새해 주체104(2015)년을 앞둔 요즘 어디 가나 명절분위기로 흥성인다. 갖가지 화려한 축등을 만들기도 하고 새해를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공연준비를 하기도 하며 마을과 거리를 보다 알뜰히 거두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식당과 가정들에서는 특식준비로, 상점들에서는 연이며 썰매, 윷놀이판 등을 사가는 사람들로 설레이고있다.

창조와 비약으로 들끓는 조국의 기상과 함께 희열과 랑만으로 가득찬 조국인민들의 생활,

거리와 마을들마다에 머지않아 펼쳐질 새해풍경을 그려보느라니 마음은 벌써부터 흥그러워진다. 아침해가 솟아오른 새해 첫날아침 집안의 웃어른, 이웃어른들에게 세배를 하고 친척, 친우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 색동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세배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도 정답게 안겨온다.

민족의 향기가 가득 풍기는 맛있는 민족음식봉사로 급양봉사망들이 흥성이고 가는 곳마다에 윷놀이, 장기를 비롯한 민속놀이들이 펼쳐져 함박꽃같은 웃음이 여기저기에서 피여오를 새해의 풍경,

새해를 맞으며 학생소년들의 설맞이공연도 진행된다.

생각할수록 가슴이 뜨거워진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새해는 어김없이 찾아온다. 그러면 사람들은 마음속의 모든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하지만 사람들의 생을 따뜻이 품어 안아줄 조국이 없다면 그 새해가 열백번 온들, 그 희망을 아무리 소중히 간직한들 무엇하랴.

돌이켜보면 지난날 우리 민족은 외세에게 나라를 빼앗긴탓에 소박한 소원을 아뢰일 새해 첫날의 환희로운 감정마저 빼앗겨야 했었다.

새해는 왔어도 마음속의 어두운 그늘은 가셔질줄 몰랐던 민족, 바로 그러한 우리 민족의 운명이 비로소 전환되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어버이로 높이 모신 때부터였다.

그때로부터 조국땅에 해마다 밝아오는 새해의 첫아침은 인민들의 마음속에 앞날에 대한 희망과 기쁨을 가득가득 새겨주고있다.

하기에 오늘 조국인민들은 새해를 맞으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위해, 행복을 위해 한평생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부터 찾아가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고 그분들께 영원히 충정다할 결의를 다지고있다.

양력설을 즐겁게 보내는 청소년학생들

본사기자 조신일

기쁨을 주는 사람들

릉라곱등어관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길새 없다.

더우기 《평양3》호의 산수계산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붉은 넥타이를 맨 소년단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셋 더하기 넷》이라고 말하자 곱등어가 소리판으로 달려가 일곱번 종을 울린다. 이번에는 한 녀인이 일어나 《일곱 덜기 둘》이라고 말하자 곱등어는 정확히 다섯번 종을 울린다.

또 남녀손님들가운데서 녀자손님이 마음에 든다는 《평양1》, 《평양2》호와 남자손님이 마음에 든다고 머리를 끄덕이는 《평양3》호의 모습에 어른들은 배를 그러쥐고 웃고 아이들은 박수를 치며 기뻐서 어쩔줄 몰라한다.

이들의 모습은 《참으로 놀라운 곱등어들의 공연이였습니다. 내가 지금껏 보지 못한 가장 훌륭한 공연이였고 앞으로도 보고싶은 공연입니다.》라고 하던 미국AP통신사 기자 티모시 술리반의 말을 다시금 새겨보게 한다.

근 40분간에 걸쳐 사람들에게 끝없는 기쁨을 안겨주는 곱등어들의 교예, 여기에는 인민의 기쁨과 랑만을 위해 바친 이곳 조교사들의 남모르는 수고가 깃들어있다.

비록 곱등어교예가 시작된지는 몇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조교사들은 자기들의 공연이 세계와 당당히 맞서나가기 위해 모든것을 바치였다. 그 나날 그들은 곱등어와 조교사와의 수중기교에 대하여서도 생각하게 되였고 옛말에 나오는 인어공주출연에 대하여서도 생각하게 되였다.

어느날 조교사 김명성은 병코곱등어만이 할수 있다는 곱등어의 산수계산을 겁이 많고 주변환경에 예민한 얼룩반점곱등어 《평양3》호에게 우리 식으로 할 생각을 하게 되였다.

그의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머리를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꼭 우리의 기술로 하려는 생각을 안고 새로운 조교에 달라붙었다.

무슨 일에서나 인차 싫증을 느끼고 놀기 좋아하는 이 곱등어에게 산수계산을 시킨다는것은 대단히 힘들었다. 주저앉고싶은 생각이 불쑥불쑥 들었으나 기어이 세계를 앞서나가겠다는 결심은 그 모든것을 이기게 하였다. 드디여 지난해 광명성절날 《평양3》호의 산수계산은 관람자들의 대절찬을 받았다.

곱등어를 길들이는 조교사들은 모두 아직 30대를 넘기지 않은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의 졸업생들이다. 그들은 강한 의지를 요구하는 수영과 임의의 체육종목을 다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고 우리 식의 과학적인 조교리론으로 무장하며 자기들의 지적능력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고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것은 먹이조건반사에 맞추어 정해진 훈련시간이다. 매일 하루 네번에 걸쳐 생신한 물고기를 손질하여 곱등어들의 구미에 맞게 먹이를 만들고 그에 맞게 15분이라는 한번 훈련시간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그러나 그들의 곱등어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진정에 제마음대로 놀아치던 곱등어들이 점차 조교사들과 친숙해지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였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그들의 긍지는 끝이 없다.

조교사 리옥경은 말하였다.

《지금 우리는 그 누구도 할수 없다던 얼룩반점곱등어들로 산수계산도 하고 공연시간도 늘여나가고있다.

나는 지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곱등어관에 오시여 보아주신 〈릉라〉곱등어에 대한 조교를 하고있는데 훈련을 잘 주어 그이께 꼭 기쁨을 드리겠다. 그리고 나와 같은 처녀조교사를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내겠다.》

글 본사기자 한신애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우리의 생활이 그대로 노래로 되였습니다》

우리는 얼마전 제14차 전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가족부류)에서 1등을 한 평양326전선공장 로동자부부인 김혁남(36살), 리정심(31살)의 일터를 찾았다.

어디 가나 록지구역이 조성되여있었고 여러가지 형태의 양어못들에서 팔뚝같은 잉어들이 꼬리를 물고 유유히 헤염치고있는 공장구내는 하나의 공원을 방불케 하였다.

우리는 작업의 쉴참에 양어못에서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주고있는 그들 부부를 만날수 있었다.

우리의 취지를 듣고난 리정심은 《사회를 위하여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우리같은 로동자부부를 소개하다니요?!》라며 당황함을 금치 못해 하였다.

《1등의 비결을 알고싶어서입니다.》라는 우리의 말에 그들 부부는 《우리가 1등을 할수 있은것은 그저 우리의 생활을 그대로 펼쳐보였을뿐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남편인 김혁남은 케블직장 상절연작업반에서, 안해인 리정심은 같은 직장 완성작업반에서 일하고있었다. 남편이 연선을 꼬는 앞선공정을 맡았다면 안해는 전선줄에 피복을 씌우는 뒤공정을 맡고있었다.

그들 부부의 사랑은 로동속에서 맺어졌다.

언제인가 혁남은 로동시간이후에도 120㎜압출기를 떠나지 않는 한 처녀를 보게 되였다. 그 처녀는 케블들의 정격두께를 다시 재여보면서 수첩에 무엇인가 부지런히 적어나갔다. 혁남은 저도모르게 그 처녀에게로 다가갔다.

《사실 오늘 제가 케블들의 정격두께는 보장했지만 자재는 많이 랑비했어요. 그래서 자재도 절약하고 정격두께도 보장할수 있는 방도를 이렇게 찾고있어요.》라며 처녀는 혁남이 무슨 작업반장이나 되는듯 이야기했다.

그날 혁남은 처녀(리정심)와 퇴근길에 함께 올랐으며 통성도 하게 되였다.

《그날부터 저의 눈길은 자연히 정심에게로 쏠렸습니다. 자기 일에 애착을 가진 그가 저의 마음을 끌어당기였던것입니다. 이런 처녀라면 … 그래서 전 고백을 했습니다.》라고 혁남은 말하였다.

혁남과 정심은 주체97(2008)년에 가정을 이루었고 합쳐진 마음은 그들 부부를 직장의 로력혁신자로 이름떨치게 하였다.

그들 부부에게는 별칭도 많다.

배구장에서는 유명한 타격명수부부, 달리기주로에서는 100m달리기명수부부, 예술공연무대에서는 재담명수부부…

가정을 이룬후 혁남은 텔레비죤에서 방영되는 전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 가족부류경연을 보면서 자기 부부도 거기에 한번 참가해보고싶은 충동을 느끼였다.

그러나 학교때 화술소조에나 다녀본 경험을 가지고 전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에 참가한다고 생각하니 자신심이 생기지 않았다. 안해와의 진지한 토론과정에 할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태여나면 애기궁전, 자라나면 소년궁전이라는 노래도 있듯이 혁남이나 정심은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에 의하여 공부를 하면서 과외소조들에서 자기들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워왔으며 로동현장에서 그것을 더욱 자래워왔기때문이였다.

혁남과 정심은 로동자들이 좋아하는 노래들을 선정한데 기초하여 로동시간이후에 성악훈련과 함께 저대, 장고, 기타훈련에 열정을 바치였다.

이렇게 되여 그들은 주체103(2014)년 7월 제14차 전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무대에 나섰으며 준결승단계에서 《경치도 좋지만 살기도 좋네》, 《아침도 좋아 저녁도 좋아》를, 결승단계에서 《뽕따러 가세》, 《사랑넘친 내 나라》를 안삼불을 맞춰가며 불러 관중의 절찬을 받았다.

노래경연심사원들뿐아니라 관중까지도 무대가 아니라 실지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하는것처럼 노래를 잘 불렀다, 소리가 통일되여있고 안삼불 또한 훌륭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경연무대에서 정심은 《우리의 생활이 그대로 노래로 되였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케블직장 직장장 문명철은 《이들 부부는 직장의 자랑, 공장의 자랑입니다.》라고 웃으며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김솔미
사진 본사기자 림정국

걱정많은 미용사

김만선

《향미동무, 오늘 그렇게 머리단장을 하니 정말 아름답구만요. 어디서 했어요?》

《대줄가 말가, 바로 저기서 했어요.》

얼굴에 웃음을 함뿍 담고 경쾌하게 걸어가며 처녀가 가리킨 곳은 대동교미용원이였다.

중구역편의봉사사업소 대동교미용원은 전국적으로 미용을 잘해주는 곳으로 소문이 자자하다.

대동교미용원이 소문나게 된데는 미용원책임자 김만선(68살)의 노력이 깃들어있다.

《어느덧 저의 근무년한이 50년이 되였습니다. 하지만 언제 한번 저는 힘든줄 몰랐습니다.》

우리와 만난 김만선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늘씬한 키에 활력이 넘쳐나는 그의 모습은 미용사라기보다 무용배우를 련상시켰다.

우리의 추측이 틀리지 않았다. 육체적조건과 형상능력이 좋았던 만선은 원래 조선체육대학에서 예술체조를 배웠다.

그러던 어느날 학급동무와 함께 그의 어머니가 일하는 미용원에 가게 되였다.

머리를 하고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미용사에게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하였다. 그런 모습은 만선이 세상에 나서 처음으로 보는 모습이였다.

(저 사람들은 왜 저리도 깍듯이 인사를 할가?) 하고 만선은 생각하였다.

미용사를 친절하게 대하는 손님들의 모습은 그가 어릴 때 본 모습들과는 너무도 판이하였다.

그가 살던 일본 효고현 아마가사끼시에서는 미용사, 리발사들이 까까쟁이로 불리우면서 하대받는 사회의 최하층이였던것이다.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의 머리를 다듬어주기를 몹시 즐겨하였건만 그런 까닭에 그는 자기의 취미와 희망을 애써 포기하였었다.

그러나 손님들로부터 깍듯이 인사를 받고 자기 일에 대한 보람으로 넘쳐있는 미용사들의 모습은 그의 마음을 둔장질하였다.

(나도 저들처럼 만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미용사가 될테야.)

이렇게 되여 그는 자기의 전공을 바꾸었다.

시편의봉사부문의 학교에서 미용기술을 배우는 나날은 꿈같이 흘러갔다.

미용에서 기초인 조발묘기를 터득하기 위해 학교에서 살다싶이 하였고 조발수법을 세련시키기 위해 늘 빗과 가위를 들고 머

리부위별에 따르는 각도보장훈련을 하였다.

하고싶어 시작한 일은 아무리 해도 힘든줄 모른다고 만선은 미용사가 되여서도 꾸준히 기술을 련마하였다. 발전하는 시대적요구와 높아가는 사람들의 문화수준에 맞게 머리형태를 창작하고 그에 따르는 조발수법들을 찾아내기 위하여 명절날, 휴식일이 따로 없었고 인민대학습당에서 미용과 관련한 세계적추세와 기술을 하나하나 파고들었다.

그 나날 지난 시기 많은 시간을 들여야만 했던 파마를 짧은 시간에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으며 단면조발방법을 비롯하여 조발방법들을 새롭게 내놓았다.

하루가 다르게 만선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는 일터에서나, 어디서나 우리 미용사로 존경받게 되였다.

《그는 매 사람의 개성적특성과 생김에 맞게 머리를 조발해줄 줄 알았다. 그에게서 한 조발은 자른후나 머리칼이 자란후나 그 형태에서 변화가 없었다.》라고 중구역 교구동에서 사는 김명희 녀성은 말하였다.

손님들에 대한 친절한 봉사성과 높은 기술을 소유한 만선은 공훈리발사로, 미용원 책임자로, 시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되였으며 무상으로 3칸짜리 집도 배정받았다.

젊은 미용사들의 기능을 높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김만선

주체74(1985)년 일본에서 사는 그의 언니들이 조국방문단으로 평양에 와서 지방주권기관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였을 때였다. 방문단의 많은 성원들은 그의 언니들에게 《어떻게 당신의 동생은 미용사이고 녀성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주권기관 대의원으로 또다시 선거받았는가?》고 놀라움에 겨워 물어보았다. 언니들도 알수 없었다. 의문을 풀지 못하는 그들에게 만선은 《주체49(1960)년 아버지를 따라 남동생과 귀국선에 오를 때 나는 오늘의 나를 상상해보지 못했다. 조국에서는 직업의 귀천이 따로 없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면 누구나 인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수 있으며 대의원으로도 될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후 언니들은 고마운 조국을 위해 더욱더 헌신하라고 품들여 마련한 미용도구들과 비품들을 그에게 보내주었다.

조국은 그가 미용기술을 더 습득할수 있도록 세계 여러 나라의 이름있는 미용사들과의 기술교류도 조직해주었다.

《조국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럴수록 걱정은 커만 갑니다. 인민의 봉사자로서 약동하는 조국의 모습에 어울리게 우리 녀성들의 미모를 어떻게 하면 더 잘 가꾸어줄수 있을가 하고 말입니다.》라고 만선은 말하였다.

그는 구역편의봉사사업소만이 아니라 시안의 여러 단위에서 찾아오는 미용사들에게 자기의 미용기술과 묘기들을 아낌없이 배워주고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박창복

상 식

소한과 대한

소한은 작은 추위라는 의미에서 불여진 이름이다.

소한은 양력으로 1월 5일이나 6일경에 든다.

동지가 지나서 대기온도가 갑자기 내려가면 사람들은 소한추위가 시작되였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에서 한해 겨울치고 제일 추운 기간이 소한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수 있다.

그런데로부터 대한이 소한네 집에 가서 얼어죽었다는 말도 생겨난것이다. 사실 소한때 추위에 사람들은 립춘을 앞둔 대한때보다 더 추운 느낌을 받는다.

소한날 평양지방에서의 여러해 평균온도자료에 의하면 최고기온은 령하 2.3℃, 최저기온은 령하 12.8℃이며 땅속 25cm에서의 온도는 령하 1.2℃이다.

대한은 한해치고 제일 추운 때라는 뜻이다.

해마다 양력 1월 20~21일경에 해당된다.

대한날에는 오전 7시 52분에 해가 떴다가 오후 17시 42분에 진다.

낮길이는 9시간 50분정도이다.

대한날에는 기온과 땅온도가 다른 시기에 비해 몹시 내려간다.

여러해 평균온도자료에 의하면 평양지방에서 대한날 최저기온은 령하 13.2℃, 최고기온은 2.2℃였다.

대한이라 하여 한해치고 제일 추운 날이 되는것은 아니다.

수십년간 연구자료에 의하면 평양과 신의주, 혜산, 청진지방에서 제일 추운 날은 양력 1월 16일이였으며 개성지방은 1월 17일, 강계, 함흥지방은 1월 18일, 원산지방은 1월 19일이였다.

대한절기때에는 땅온도가 제일 낮을뿐아니라 땅이 제일 깊이 언다. 평양지방에서 72㎝, 양덕지방에서는 105㎝, 무산지방에서는 161㎝깊이까지 언다.

중국 료녕성 단동시 원보구 연안소구 39호 801실 리훈 방 한성옥(딸) 앞

효진이가 글을 배운다

사랑하는 내 딸 성옥아, 그동안 잘 있었니.

새해를 맞으니 네 생각이 간절해지는구나.

이렇게 조국에 너의 언니며 오빠, 동생들이 다 있지만 이 엄만 해외에서 살고있는 네가 앓지 않고 잘 지내는지 걱정이 늘 떠나지 않는다.

너의 시어머니와 효진이아버지, 효진이삼촌 그리고 사랑스러운 딸 향미도 모두 건강하여 잘 있으리라고 믿고싶구나.

네가 지난번에 조국에 나왔을 때 시어머니가 당뇨병을 앓고있다고 걱정하던 말을 듣고보니 나도 걱정이 앞선다.

성옥아, 늙은이들은 집안의 젊은이들이 늘 관심하며 돌보아주어야 한다. 슬하에 딸자식이 없는 시어머니에게 네가 맏며느리구실을 잘해야 집안이 화목하고 집사람들이 모두 건강할수 있음을 꼭 명심하고 노력해라.

내가 이렇게 펜을 든것은 네 아들 효진이의 소식을 전하고싶어서이다.

효진이가 우리 글을 배운지 석달밖에 안되는데 이젠 제법이구나.

그의 유치원담임선생님은 효진이가 머리도 좋고 성격도 좋아 공부를 참 잘한다고 늘 칭찬을 한다.

그 애는 웬간한 글은 척척 소리내여 읽기도 하고 불러주는 글을 또박또박 곱게도 쓴다.

어제는 우리말공부를 잘하고 좋은 일을 찾아해서 빨간 오각별 두개를 작은 가슴에 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오늘은 자기 엄마에게 별자랑과 글공부자랑을 하겠다면서 저렇게 연필을 들었구나.

효진이는 유치원선생님들은 물론 동네어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있다.

언제나 나에게 기쁨만을 안겨주는 효진이는 나의 자랑이다. 그 애만 있으면 늘 주위의 분위기가 따뜻하고 웃음꽃이 피군 하는데 그건 꼭 너를 닮은것 같구나.

너도 어릴적부터 엉뚱하면서도 꾸밈없이 솔직한 말과 행동으로 집과 학교에서 부모와 형제들, 선생님과 동무들, 만나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군 하였지.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효진이가 내곁에 있어 난 시간가는줄도 힘든줄도 모르고 살아왔다.

사람들은 자기 자식보다 두벌자식이 곱고 친손자보다 외손자가 더 곱다고 하지만 그래서라기보다 효진이에게 나의 온넋을 다 쏟아부었기때문에 더욱 그런것 같구나. 너의 언니나 동생도 이따금 효진이는 자기의 친아들과 같다고 말하군 한단다. 그 말이 맞는것 같다.

한데 이제 얼마 있으면 학교에 갈 준비를 하느라 효진이를 너에게 보내야 하니 그때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앞서누나. 사실 난 효진이가 없는 이 집을 한순간도 생각해본적이 없다. 애가 자기 어미품으로 가야 하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니 나는 너와 효진이를 위해 그걸 묵묵히 따를것이다.

5년전, 내가 두달밖에 안된 효진이를 맡아 키울 결심을 한것은 네가 자기의 일을 훌륭히 할것을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용단이였다.

동포대중이 믿고 따르는 훌륭한 일군이 된다는것은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다.

성옥아, 너의 앞길에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도 마음속으로라도 이 어미가 함께 헤쳐가고있음을 잊지 말어라.

새해에 모두 건강해서 일들을 잘해나가길 바란다. 아울러 시집식구들에게 나의 새해인사를 전해다오.

그럼 이만 펜을 놓겠다.

평양시 만경대구역 당상1동 60인민반
어머니(김영복)로부터

봉산탈춤으로 유명한 고장

지난해 가을 취재길을 이어가던 우리는 평양에서 개성으로 나가는 도로 중간지점에 있는 은정휴게소에서 잠간 휴식을 하였다. 휴게소에는 많은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이 와있었다.

다리형식으로 건설된 휴계소에서 한 해외동포가 하는 말이 들려왔다.

《이 일대 어디엔가 봉산군이 있겠는데… 아버지의 고향이지만 난 아직 가보질 못했소. 저녁에 우등불을 피워놓고 봉산탈춤을 추던 이야기를 해주군 하더랬는데…》

나이듬직한 동포의 말은 우리들로 하여금 취재지를 봉산군으로 정하게 만들었다.

봉산군은 어디가나 가을의 풍요함을 자랑하고있었다.

우리와 만난 군의 일군은 봉산땅은 예로부터 봉산탈춤으로 이름난 고장이라고 하면서 어디가나 탈춤을 추지만 특히 봉산군 은정축산전문협동농장에서 탈춤을 제일 잘 춘다고 말해주었다.

은정축산전문협동농장은 봉산군 읍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서흥군 경계에 자리잡고있었다.

읍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었건만 은정리로 가는 길은 힘들지 않았다. 그것은 지난날 지나가는 길손에게 밥 한그릇은 대접해도 물 한그릇은 대접하지 못했다던 봉산군에 큰 저수지들이 건설되여 가는 곳마다에서 군내인민들의 밝은 모습을 볼수 있었기때문이였다.

우리는 마침 재도이칠란드동포 최광삼의 언니인 최광훈(녀, 72살)을 만나 함께 동행하게 되였다.

은정축산전문협동농장의 젖가공실에서

그는 우리의 취지를 듣고 자기도 봉산탈춤을 몹시 즐겨한다고 하면서 젊었을 때에는 탈춤을 잘 추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춤을 익히였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봉산탈춤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해주었다.

고려 말엽부터 추기 시작하였다는 봉산탈춤은 봉건관료배들과 중들의 부패상을 풍자하고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근로인민들의 항거정신을 반영하고있다. 타령장단을 비롯한 다양한 장단들에 맞추어 추는 약동적이고도 활달한 춤, 중과 량반관료배들에 대한 항거의 정신이 반영되여있는 팔목춤 등은 관중의 흥취를 돋구어주고있다. 그는 봉산탈춤을 모르면 봉산군 사람이 아니라고 웃으며 말하였다.

그의 이야기에 빠져있느라니 우리의 마음은 마냥 즐거웠다.

어느덧 한폭의 그림과 같은 마을에 이르렀다.

라장산을 끼고 골마다 전개된 풀판마다에서 염소떼 넘쳐흐르고 젖비린내가 물씬물씬 풍기는 젖가공실, 착유실들이며 농업과학기술지식보급선전실 등이 늘어선 은정축산전문협동농장의 전경은 한폭의 그림을 방불케 하였다. 화가라면 이런 멋진 절경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을것이라는 생각에 잠겨있는데 김옥선관리위원장이 이런 말을 해주었다.

《주체92(2003)년 6월 우리 은정리를 찾으시였던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산판과 골짜기마다에 흐르는 염소떼와 축산시설들을 보시며 새 세기를 상징하는 황홀한 풍경이라고 교시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농장원들의 봉산탈춤도 보아주시였습니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잘한다고 제일 선참으로 박수도 쳐주시고 민속무용을 적극 장려하고있는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하시였습니다.》

봉산탈춤을 즐겨 추는 농업근로자들

그이의 교시는 농장원들의 가슴속에 깊이 자리잡았다. 그들은 축산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나가면서도 방목에서 돌아오면 모여앉아 민족장단에 맞추어 탈춤을 더 세련시켜나갔다.

고기생산성이 좋은 파울, 젖생산성이 높은 자넨종을 비롯한 여러종의 염소들이 수천마리나 더 불어나 염소분장이 하나 더 생기게 되였으며 젖가공실에서 치즈, 산유를 비롯한 젖가공제품들이 생산되여 탁아소와 유치원, 마을사람들의 식탁에 매일 오르게 된것은 물론 군과 도에까지 공급되고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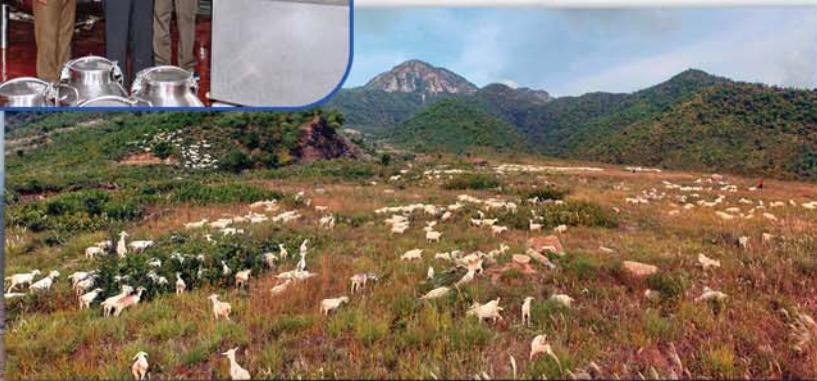
은정리문화회관, 은정출판물보급실, 은정축산전문협동농장 10일유치원도 도시부럽지 않게 더 번듯하게 꾸려놓았다.

봉산탈춤을 보려고 은정리를 찾는 미술가, 시인, 작가, 배우들도 많아졌다.

참 좋겠다는 우리의 말에 관리위원장은 《봉산탈춤을 잘해서 우리 리가 이름이 났겠습니까. 아닙니다.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더욱 발전풍부화시켜나가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랑속에 우리 리가 더 빛나고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그 은정을 길이 전해가기 위해 그분들의 태양상을 리소재지에 높이 모시였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어느덧 해는 기울어 산촌에 저녁노을이 비끼였다.

우리는 봉산탈춤을 사랑하는 이곳 사람들의 모습에서 더욱 변모될 봉산군의 래일을 그려보며 이곳을 떠났다.

글 본사기자 김솔미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민족번영의 길을 힘차게 걸어나갑시다

동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랑찬 사변들로 아로새겨진 주체103(2014)년은 어느덧 흘러가고 새해가 왔습니다. 올해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 조국해방 70돐, 6. 15북남공동선언발표 15돐이 되는 해입니다.

이 뜻깊은 새해를 맞는 여러분께 조국인민들의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지나온 한해를 돌이켜보고 또 올해에 해야 할 일들을 설계해보느라니 참으로 감회가 깊어집니다.

지난해에 여러분은 몸은 비록 해외에 있어도 자기들의 몸에는 조선사람의 피가 흐른다며 조국의 강성국가건설과 통일을 위해 아낌없는 열정을 바쳐왔습니다. 지금도 중국, 로씨야를 비롯한 우리 동포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통일애국의 구호를 힘차게 부르며 행사도 진행하고 시위도 벌리던 여러분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민족의 의사와 리익을 절대적기준으로 삼고 자주적대와 민족우선, 민족옹호의 원칙을 확고히 세우며 북남사이의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왔습니다. 그 길에서 여러분은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하느라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를 방해하려는 온갖 행위들을 반대하여 적극적인 공동행동을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참된 애국은 무엇이겠습니까.

민족이 분렬된 오늘 진정한 애국은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있고 바로 여기에 우리 민족이 번영하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을 통일하자면 온 민족이 굳게 단결해야 합니다.

민족의 대단결은 통일의 천하지대본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 민족끼리의 대하에 뛰여들어야 합니다. 정세가 엄혹하고 난관이 겹쌓일수록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통일의 흐름을 힘차게 추동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도 지난해 가을 남조선 인천에서 진행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터져나온 통일의 함성을 가슴에 새기고 있을것입니다. 북과 남의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마다 북남공동응원의 열띤 함성이 온 경기장을 들었다놓았습니다.

북의 녀자축구선수들이 일본팀을 타승하고 영예의 1위를 쟁취하였을 때에는 우리 선수들과 남조선인민들이 목소리를 합쳐 조국통일을 웨치고 또 웨쳤습니다. 통일은 민족의 절절한 소원이기에, 통일에 민족번영의 길이 있기에 남조선인민들은 그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쓴 대형글발과 기발을 세차게 휘날리며 그리도 격정을 토로한것이였습니다. 그것은 그 누가 시킨것도 꾸민것도 아니였습니다. 심장의 그 웨침은 해묵은 대결의 력사를 기어이 끝장내려는 우리 민족의 강렬한 함성이였습니다. 그 화폭을 보면서 여러분은 아마 통일열기로 들끓던 6. 15시대를 다시금 그려보았을것입니다. 그리고 통일된 조국의 래일을 마음속에 소중히 안아보았을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조국의 통일을 이룩해야 합니다. 지난해에도 그러했듯이 올해에도 자기 민족을 우선시하고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관점을 가지며 민족적화해와 단합으로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단호히 짓부셔나가야 합니다.

그 어떤 흐름도 단합된 힘으로 나아가는 민족의 앞길을 막지 못할것입니다.

동포여러분, 뜻깊은 올해의 날과 달들에 통일애국의 헌신으로 빛나는 삶의 자욱들이 수놓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모두 손을 잡고, 어깨를 겯고 민족번영의 길, 통일애국의 길을 힘차게 걸어나갑시다.

해외동포사업국 처장 김정삼

인상기

대동강맥주공장을 돌아보고

대동강맥주는 우리 해외동포들속에서도 그 이름이 유명하다.

그것은 대동강맥주가 21세기에 들어와 동방의 제일맥주라고 하는 중국의 《청도》나 일본의 《아사히》를 릉가하기때문이다.

그 이름만 들어도 시원하고 마음까지 찡하게 만들어주는 대동강맥주공장에 꼭 한번 가보고싶었는데 이번에 나는 그 소원을 풀었다.

대동강맥주는 상표가 보여주듯이 대동강의 맑은 물과 호프와 보리 등 100% 국내원료로 만들고있었다. 공장의 내부를 돌아볼수록 국가에서 인민을 위해 정말 많은 투자를 하였다는것이 알렸다.

대동강맥주는 맥주의 위생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되고 알콜, 색도, 맑음도 등 10여가지의 공인된 질지표들과 보관에서도 세계적기준에 도달한것으로 하여 ISO 9001품질관리체계인증을 받아 다른 나라 사람들도 엄지손가락을 내흔든다고 한다.

그렇게 품을 들여 만든 맥주를 조국에서는 인민들에게 거저나 다름없는 값으로 봉사하여주고있다. 그것이 얼마나 큰것인가를 그들은 알지 못하고있었다. 늘 그런 사랑을 받고만 살아온 사람들이니 그것을 잘 알수도 없었고 알 필요도 없는것 같다.

사람을 제일 귀중한 존재로 여기는 사회주의 우리 조국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공장에 있는 감상록에 사랑의 흐름이여 영원하라는 글까지 남기였다.

흰구름이 뭉게뭉게 피여오르는듯 한 거품이 고뿌마다 흘러넘치는 독특하고 상쾌한 대동강맥주의 맛은 영원히 변함이 없을것이다.

중국 단동시 방영선

커가는 호기심

남 겐나지: 우리 부부는 고국을 처음으로 방문하였다. 우리는 로씨야에서 고국에 대한 선전물을 많이 보아왔었는데 그때마다 호기심이 커갔다. 그 호기심을 풀기 위해 고국을 한번 꼭 찾아보리라고 생각하고있었다.

방문기간 우리는 고국에서 참으로 많은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였다. 아름다운 거리, 훌륭한 기념비적건축물들과 소박하고 진실한 사람들의 친절성은 우리로 하여금 단번에 평양에 정이 들게 하였다.

리 료자: 그렇다. 가는 곳마다, 보는것마다 우리의 마음을 틀어잡았다. 처음 와보는 고국에 대한 호기심은 나날이 더 커만 갔다.

고국을 알고싶은 우리의 마음은 고국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감정으로 승화되였다.

고국의 령토는 비록 작아도 인민은 위대하였다. 그들은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어 세기적인 진보와 번영을 이룩해나가고있었다.

고국의 발전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니 기쁨을 금할수 없다. 그러한 고국을 가진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이 가슴에 차고넘친다.

남 겐나지: 평양에서 보낸 나날이 너무 즐거워 시간이 짧아보인다. 국가선물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도 참관하였고 룡악산에도 올라보았으며 대동강유보도를 거닐고 식당배 《대동강》호에 올라 시원한 대동강맥주도 마시였다.

우리는 가까운 앞날에 고국을 꼭 다시 찾아보려고 한다.

리 료자: 그렇다. 고국에 와서 우리가 보고 느낀 모든것을 로씨야에 살고있는 나의 자식들과 친척, 친우들에게 알려주고싶다. 아울러 우리를 잘 맞이하고 따뜻이 대해준 고국인민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싶다.

로씨야 모스크바시
남 겐나지, 리 료자

고국방문

웃음절로, 노래도 절로

-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일군대표단 -

평양민속공원에서

조국을 한번 다녀가면 그에 대한 인상이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다는것이 해외동포들의 심정이다. 우리는 그 마음을 담아 이 지면에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일군들의 조국방문소식을 싣는다.

랑만적인 청년들이여서인지 그들의 조국방문나날은 참으로 유쾌함과 즐거움으로 꽉 차있었다. 그들은 명산으로 소문난 칠보산에 올라 기묘한 바위들의 만물상을 바라보며 거기에 깃든 전설속에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였고 푸른 물결이 일렁이는 바다가에서 가지가지의 유희오락으로 즐거운 한때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평양민속공원을 참관하면서 곳곳에 꾸려진 옛집들에서 어제날의 신랑, 신부가 되여 《결혼식》도 하고 가야금도 타면서 선조들의 생활을 그려내기도 하였다. 그들은 뻐스를 타고 평양의 거리들을 돌아보면서도 노래를 부르고 시도 읊으며 자기들의 마음을 터치군 하였다.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국장 한성옥동포는 이렇게 말하였다.

《정말 웃음도 노래도 많은 조국방문입니다. 그러나 조국의 경치가 아름답고 현대적인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많아 기쁨이 넘쳐나는것만은 아닙니다. 미림승마구락부를 참관하는 과정에도 생각한바이지만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 되고 인민을 위해 모든것이 복무하는 조국의 모습이 한없이 긍지스럽고 정겨워서 기쁨이 자꾸만 솟구치는것입니다.》

조국방문기간 그들은 인민의 나라를 일떠세우고 빛내여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 그분들의 동상이 높이 모셔진 평양의 만수대언덕에 올랐다.

글 본사기자 홍정혁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미림승마구락부에서 기념사진도…

송도원에서 만난 사람들

어느덧 주체103(2014)년 한해가 흘렀다. 얼마전 한해 취재수첩을 펼치고 가지가지의 추억을 떠올리던 우리의 눈앞에는 지난해 여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재중동포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지금도 그곳의 생일식당에 펼쳐졌던 화폭이 잊혀지지 않는다. 주인공을 축하하여 거듭 터져오르던 요란한 박수소리, 끊길새없이 이어지던 축하의 노래소리… 생일의 주인공은 제29차 송도원국제소년야영에 참가한 중국 료녕성 봉성시 조선족중학교 학생 강명림이였다. 시종 얼굴에 기쁨이 가셔질줄 모르던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강명림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차려주던 생일상보다 굉장히 큽니다. 내가 좋아하는 고기료리도 있습니다. 가지수를 세여보니 닭고기훈제, 돼지고기단졸임, 김치를 비롯해서 열두가지나 됩니다. 거기에 수박이며 복숭아, 빵과 단물도 있습니다.

정말 고국에서 맞이한 나의 열네번째 생일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해 마음써준 선생님들이 고맙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우리의 생각은 깊어졌다. 아직은 조국이, 고국이 무엇인지 다는 모를 10대의 그였다. 과연 이국에서 나서자란 새 세대 동포들의 눈가에 고국은 어떤 모습으로 새겨지는것인지.

그로부터 며칠후, 강명림학생과 함께 야영에 참가한 료녕성 영구시 조선족고급중학교 학생 김경수가 한 이야기가 되새겨진다.

김경수

남달리 성격이 활달하고 리지적인 그는 우리와 만난 자리에서 자기의 생각을 숨기지 않았다. 머지 않아 학교를 졸업하게 되는것으로 하여 꿈이 많고 포부가 큰 그는 우리에게 자기도 기자가 되고싶다고 말하는것이였다. 소학교시절부터 축구, 탁구에 취미를 두었고 3년전에는 료녕성적으로 진행된 조선족학교들의 축구경기에서 중간방어수로 활약하여 자기 학교가 우승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경수학생이고보면 그의 꿈이 너무도 엉뚱한것만 같았다.

그는 우리의 의문에 이렇게 말을 이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력사과목을 통하여 우리 조선민족의 옛 모습은 그려볼수 있었지만 오늘의 모습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야영기간 야영소선생님들의 살뜰한 보살핌속에서 근심걱정없이 생활을 하니 그들모두가 나의 형님, 누나, 친척처럼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정답고 고마운 마음들 그리고 야영각, 실내체육관, 야외물놀이장, 조류사, 수족관, 거울집 등 모든것이 희한하게 꾸려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대하여 신문에 내서 세상에 자랑하고싶습니다. 보다는 기자가 되여 고국의 모든 곳을 다 돌아보고 나의 심정을 글에 담고싶습니다. …》

그의 이야기는 자못 진지했다. 비록 야영생들의 야영기간은 길지 않아도 그 나날에 흘러간 조국의 모습은 티없이 맑은 그들의 마음속에 정겹게 새겨진듯 하였다.

김경자

우리의 생각을 긍정해주듯 재중동포소년야영단 단장으로 야영에 참가한 김경자동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료녕성조선족애심기금회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동포로인들과 학생들을 위해 그 무엇인가 좋은 일을 찾아하느라 애를 써왔다. 그 과정에 그들이 자기 민족에 대하여 잘 알도록 하려고 중국 동북지방의 여러곳을 거쳐 우리 민족의 조종의 산인 백두산에도 올랐었다. 그런데 정작 고국에 와보니 감동의 진폭이 더욱 커진다. 한나라의 령도자가 한해에만도 여러차례나 야영소를 찾아 아이들의 야영생활을 구석구석 보살펴주는 나라, 후대들을 위해서는 억만금도 아끼지 않고 이렇듯 훌륭한 야영소를 꾸려주는 나라, 피를 나눈 동포라면 그가 어디에 살건 따뜻이 맞아 친혈육처럼 돌보아주는 이런 나라는 드물것이다. 하기에 우리 야영단 야영생들은 고국을 자기들의 큰집으로, 어머니품으로 부르고있다. 동심은 가식을 모른다. …

이것은 지난해 우리의 추억속에 새겨진 송도원에서 만난 해외동포들의 심정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조선일

상 식

《금오신화》

《금오신화》는 김시습의 단편소설집이다.

책은 15세기 중엽에 나왔다. 책의 끝에 《첫째집》(갑집)이라고 씌여져있는것으로 보아 그 후편이 있었거나 혹은 예상되였던것으로 짐작된다.

작품집에는 김시습(1435년-1493년)이 1464년부터 경주 금오산에 들어가 살던 시기에 쓴것으로 알려진 5편의 단편소설들이 실려있다. 그가운데서 《리생의 사랑》, 《부벽정의 달맞이》, 《만복사의 윷놀이》는 애정륜리주제의 작품들이며 《남염부주이야기》와 《룡궁에 갔다온 이야기》는 작가의 철학적견해와 함께 당대의 현실생활에 대한 태도와 립장을 반영한 사회정치적주제의 작품들이다.

특히 봉건적인 륜리도덕규범의 불합리성을 보여주고 고루하고 강압적인 구속이 없는 자유로운 사랑에 대한 지향을 표현한 《리생의 사랑》은 김시습의 소설계렬에서뿐아니라 15세기 소설문학에서 대표적인 작품으로 알려져있다.

《금오신화》에 실린 작품들은 예술적형상측면에서도 일련의 특성을 보여주고있다. 매 작품들에서 주인공은 모두 현실세계에 사는 인민들로 되여있지만 그와 관계하는 다른 인물들은 대체로 룡과 신 등 비현실적이며 환상적인 인물로 되고있다. 작가는 이처럼 기이한 인간관계를 통하여 현실생활의 내막을 비교적 자유롭게 밝히고 주제사상을 심화시키고있다. 작가는 또한 사건의 일정한 계기들에서 인물들의 대화대신 서로 주고받는 화답시의 형식으로 그들의 심정을 토로하게 하고있다.

《리생의 사랑》을 비롯한 《금오신화》의 작품들은 구성의 째임새와 묘사의 구체성, 인물형상의 생동성 등 여러 측면에서 앞선시기의 예술적산문들과 구별되는 새로운 측면들을 뚜렷이 나타내고있으며 이로써 소설형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금오신화》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15세기 소설문학의 면모를 보여주는 귀중한 유산으로 되고있다.

* * *

조선의 관광지들을 찾아서 (4)

- 칠보산지구 -

칠보산은 함경북도 명천군에 위치하고있습니다.

칠보산은 산과 바다의 뛰여난 풍치로 하여 조국에서 《함북금강》으로 알려져있으며 산이름도 금, 은, 진주, 산호 등 진귀한 7가지 보물에 비기여 지어졌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철따라 아름답게 단장되는 칠보산의 경치를 두고 봄이면 백화만발한 《꽃동산》, 여름에는 록음이 우거진 《록음산》, 가을이면 단풍이 붉게 타는 《홍아산》, 겨울에는 흰눈으로 은빛단장한 《설백산》이라 불렀습니다.

내칠보의 부부바위

칠보산은 명산으로서의 특이한 자연환경을 이루고있을뿐아니라 오랜 력사와 문화를 가지고있어 금강산, 묘향산처럼 우리 나라의 이름난 명승지의 하나입니다.

칠보산은 울창한 수림으로 뒤덮인 산발들과 좁고 깊은 계곡들, 기묘한 봉우리들과 기암들, 골짜기를 따라 흐르는 맑은 물, 장쾌한 폭포와 담소, 바다가의 해안절벽과 기묘한 섬바위들로 하여 매우 아름다운 절경을 이루고있습니다.

또한 황진온천과 보촌온천, 사리온천, 다호온천, 만호온천을 비롯하여 신경계통과 피부병 등 여러 질병치료에 효과가 큰 광천자원이 풍부합니다.

실로 다른 명산들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산악미, 계곡미, 바다의 경치 그리고 계절에 따라 자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보이는 명승지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지난해 스웨리예에서 진행된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인간 및 생물권계획조정리사회 제26차회의에서는 칠보산지구를 세계생물권보호구로 등록한다는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칠보산은 크게 내칠보, 외칠보, 해칠보지역으로 나누어볼수 있습니다.

먼저 내칠보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봉우리들과 기묘하고 색다른 바위들이 솟아있어 장엄하고 황홀한 산악미를 나타내고있을뿐아니라 그 아름다운 절경을 마음껏 관망할수 있는 개심대, 승선대, 해망대, 내경대, 회상대가 있는것이 특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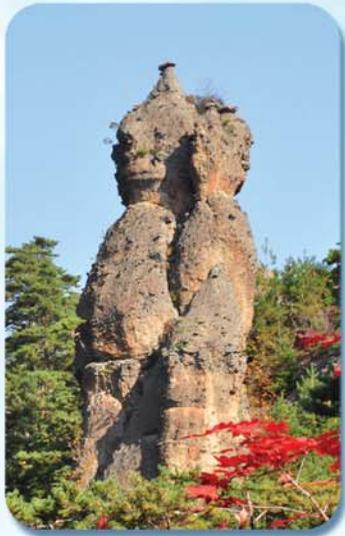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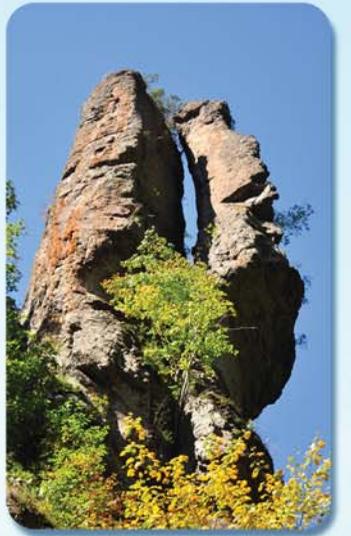
내칠보지역은 참판로정에 따라 개심사, 상매봉, 내원, 이선암구역으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전장에서 돌아온 장수가 안해와 상봉하는것과 같은 부부바위, 의자까지 갖추어 무대우에 올려놓은듯 한 피아노바위, 효성이 지극한 소년이 아홉마리 룡의 위험을 물리치고 금강골의 산삼을 캐는데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담겨진 금강폭포와 구룡담을 비롯하여 이름난 명소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외칠보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칠보산에서 내칠보와 해칠보지역을 제외한 일대를 외칠보라고 합니다. 외칠보는 내칠보의 수려하고 의젓한 자태와는 달리 높이 솟은 웅대하고 기묘한 봉우리들과 기암절벽, 수정같이 맑은 물이 쉬임없이 흘러내리는 골짜기가 많아 산악미와 계곡미로 특징지어집니다. 외칠보에는 신통히도 송이버섯모양의 웃음바위, 맹수들이 피상한 모양으로 자기의 용맹을 뽐내는듯 한 맹수봉, 처녀바위와 총각바위 등이 있습니다. 처녀바위는 비물에 젖은 치마폭을 한손으로 감싸쥐고 비옷을 걸친채 수집은듯이 서있는 얌전한 처녀모습그대로입니다. 총각바위는 무뚝뚝하고 순박한 총각이 처녀에게 첫 사랑을 고백하며 어색하게 서있는것처럼 보입니다. 이 자연바위의 형상이 너무도 생동하고 신통하여 사람들은 모두 발길을 멈추고 처녀총각바위를 이모저모 뜯어보면서 웃음을 금치 못해합니다.

기암괴석들로 이채를 띠는 만물상은 그 누가 말하면 말한대로, 생각하면 생각한대로 그 모양이 나타나 사람들을 경탄시킵니다.

또한 이 지구에는 마치 고구려의 용맹한 무사가 위풍당당히 앉아있는듯 한 장군바위와 다소곳이 머리를 숙인 녀인이 장군을 향해 절을 하는듯 한 큰절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들은 원쑤와의 싸움에서 무자비하였던 고구려군사들의 용맹한 기질과 조선녀성의 아름다운 풍모를 다 안고있는듯 싶어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말그대로 폭포아니면 소이고 소아니면 폭포라고 말할수 있을 정도로 골개수폭포와 담소가 많습니다. 이름난 폭포와 담소로서는 칠보산에서 제일 큰 폭포의 하나로 알려진 룡소폭포와 타원형으로 생긴 룡소담, 두개의 계단을 거쳐 쏟아지는 2단폭포를 비롯한 크고작은 폭포들과 담소들이 있습니다.

해칠보는 내칠보와 외칠보와는 달리 깎아지른 해안선의 절벽과 그에 형성된 각양각색의 기암괴석들, 바다가에 우뚝우뚝 솟은 기암들과 크고작은 섬들 그리고 조선동해의 푸른 물결이 끝없이 밀려와 기암절벽에 부딪쳐 물보라를 날리는 특이한 해안절경을 펼쳐보이는 명승지입니다. 이 지역에는 해칠보에서 명소로 이름난 솔섬, 무지개바위, 마치 수많은 초불이 타오르는듯 한 촉석암, 섬들이 줄을 지은듯 한 와룡바위, 산호바위, 오뚜기바위, 미인처럼 생긴 칠보암, 각시바위, 흑룡담, 낚시터를 비롯한 명소들이 있습니다. 그가운데서 솔섬은 벼랑과 바위, 우거진 솔밭, 넓은 바다와 잘 조화된 풍치 아름다운 곳으로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솔섬, 달문과 함께 해칠보의 이름난 명소로 널리 알려진 무지개바위는 하늘높이 걸린듯 한끝은 산비탈에 박고 다른 한끝은 바다에 뿌리박고

외칠보의 쌍지암

있어 참으로 절경을 이룹니다. 반달같은 바위구멍에 파도가 들이닥쳐 은빛꽃보라를 뿌릴 때에는 마치 구름우에 걸린것처럼 안겨옵니다.

해칠보를 찾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명태의 유래와 관련된 전설도 듣게 될것입니다.

해안절벽이 많은 이 지역에는 그 모양이 달처럼 생긴 달문을 비롯하여 절승봉, 선남바위, 선녀바위, 량주바위 등으로 불리우는 명소들도 있습니다.

개심사

해칠보의 무지개바위

칠보산에 대한 관광은 해마다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됩니다. 관광은 주로 명소들과 력사유적들에 대한 등산과 참관, 해수욕과 동식물연구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있습니다.

여기에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내칠보려관, 외칠보려관, 해수욕장 등 관광 및 교육을 위한 조건이 갖추어져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에 필요한 기본도로와 지선도로, 탐승도로를 비롯하여 대륜환선도로가 형성되여있어 내칠보와 외칠보, 해칠보의 모든 명소들에 다 가볼수 있습니다.

이밖에 등산길표식판과 로정안내도, 보호동식물분포도 등이 현지조건에 맞게 배치되여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칠보산을 탐승하면서 아름답고 독특한 자연경치를 보게 될것이며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 지향과 념원, 미풍량속이 깃들어있는 재미있는 전설들을 들으며 젊음을 되찾게 될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다종다양한 동식물들과 원시-고대 유적유물들과 중세 우리 선조들의 문화전통과 반침략투쟁, 슬기로운 재능과 지혜를 보여주는 읍성과 산성, 건물과 무덤 등 유적유물들도 볼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다음호를 기다려주십시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김진호

국견 풍산개

수천년동안 조선민족과 삶의 맥락을 같이하며 살아온 풍산개는 우리 인민의 감정과 정서를 그대로 체현하고있다.

지난날 조선에 대한 일제의 군사적강점에 항거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싸우던 풍산일대의 의병부대들에서 싸움과 보초, 사냥에 풍산개들을 많이 리용하였다.

그후 1930년대 중엽 풍산군(당시) 사초평저수지공사장에서 일어난 로동자들의 파업을 계기로 풍산개의 용맹하고 이악한 기질이 더 잘 알려지게 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 북부지대에 있는 유명한 풍산개도 원종을 보존하고 많이 번식시켜 널리 키우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량강도 김형권군(옛 지명 풍산군)이 원산지인 풍산개는 령리하고 날래며 적수와 만나면 끝까지 싸우는 용맹한 개이다.

특히 사냥에 훈련된 개는 감시를 잘하고 산에서 주인을 잘 따라다니며 적수가 나타나면 개무리가운데서도 제일 앞장에 서서 싸우는 특징이 있다.

풍산개는 경쾌하게 생겼으며 뒤다리가 굵고 탄탄하여 곧게 서서 산악지대에서도 잘 달린다.

대가리는 가볍게 들고 언제나 주위에 대한 감시와 경계를 하고있는감을 준다.

눈은 비교적 작으며 눈동자는 검거나 재빛을 띤다.

귀도 비교적 작으나 선 귀로서 앞 또는 옆으로 향해있다. 목은 굵고 짧으며 잘 발달되여있다.

배는 암컷이 약간 처진감이 있으나 수컷은 등에 올라붙어 민활하게 움직이는데 편리하게 생겼다. 꼬리는 엉뎅이우에 붙은것이 특징이다.

네다리는 좀 짧고 뒤다리에 덧발가락이 있는것과 없는것이 있다.

털색은 흰색이 기본이며 누런밤색을 띠는것도 있다. 키는 수컷 55㎝, 암컷 53㎝정도이며 몸질량은 수컷 24~25kg, 암컷 22~23kg이다.

몸길이는 수컷 57㎝, 암컷 55㎝정도이며 가슴둘레는 수컷 61㎝, 암컷은 59㎝정도이다. 풍산개의 새끼배는 기간은 60일이며 한배에 5~6마리의 새끼를 낳고 45~50일동안 젖을 먹인다.

풍산개는 추위와 여러가지 질병에 견디는 힘이 강하고 먹성이 좋으며 거친 사양관리조건에서도 잘 자란다. 풍산개는 순수번식방법으로 원종을 유지하고있다.

예로부터 이름이 높았던 우리 나라의 특산품종인 풍산개는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였으며 조선의 국견으로서 국가적인 관심속에 적극 보호증식되고있다.

조선자연보호련맹 연구사
김경순

록두지짐의 진맛을 찾아

아마도 동포여러분들가운데에는 록두지짐을 싫어하는 분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기름이 찰찰 도는 따끈따끈하고 노르끼레한 록두지짐을 마주하면 고소한 그 냄새가 코를 자극하여 누구나 군침을 삼키군 합니다.

남녀로소 누구나 좋아하는 록두지짐이지만 사실말이지 고유한 맛을 살린다는것은 여간 조련치 않답니다.

저는 유서깊은 평양의 보통강기슭에 한척의 유람선마냥 서있는 청류관에서 록두지짐을 전문으로 지지는 료리사입니다.

처녀시절부터 지금까지 30여년간 록두지짐을 지져오면서 제가 터득한 방법상의 문제들을 이번 기회에 해외동포여러분에게 전해볼가 합니다.

지짐은 우리 인민들이 오랜 옛날부터 즐겨먹어온 민족음식의 하나인데 명절이나 대사때에는 떡이나 국수와 함께 식탁에 꼭꼭 오르군 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재료로 만들어진 다양한 종류의 지짐들가운데서도 가장 맛좋은것으로 이름난것이 록두지짐입니다.

록두는 콩과에 속하는 한해살이작물입니다.

록두는 리뇨작용과 염증해소, 해독작용이 우월하며 피부가 맑아지고 내장의 기능을 촉진시키며 정신을 안정시키고 눈을 밝게 해주는 효과도 가지고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려약을 먹을 때에는 약재보다 효능이 뛰여나 자칫 약효과를 제거시킬 우려마저 있어 록두로 만든 음식을 금해왔다고 합니다.

옛 도서인 《규합총서》에는 록두지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되여있습니다. 거기에는 록두를 되게 갈아 기름을 많이 두고 지지는데 록두간것을 조금 떠놓은 우에 삶은 밤을 꿀에 버무려놓고 다시 그것을 씌워 작은 꽃전모양으로 만든 다음 잣과 대추를 박아 지져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량반들의 집에서나 해먹을수 있는것이였습니다. 민가에서는 흔히 록두를 물망에 갈아서 지짐판에 기름을 발라 부치든가 기껏해서 남새를 넣고 지져먹었습니다.

남쪽지방에서는 록두지짐이 손님을 대접하는 음식이라는 의미에서 《빈대떡》, 밑천이 적게 드는 음식으로서 가난한 사람들이 흔히 만들어먹는다고 하여 《빈자떡》이라고도 하였습니다.

황해도와 평안도의 록두지짐은 만드는 방법이 간단하면서도 독특한 진미로 하여 널리 알려졌습니다.

황해도지방에서는 록두에 배추나 김치거리를 넣고 돼지고기를 버무려 지져 맛을 돋구었으며 평안도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얇게 썰어 가운데 박은것을 즐겨먹었습니다. 황해도에서는 이것을 《막붙이》라고 불렀으며 평안도에서는 보통 《지짐》으로 통하였습니다.

이렇게 민족적특색이 짙은 록두지짐을 결혼식과 같은 대사때에 큰상에 놓는것은 물론이고 보통때에도 특식으로 지져먹군 하였던것입니다. 평안도지방에서는 록두지짐을 굽높은 접시에 겹쌓아 잔치상에 놓는것을 풍습으로 여겨왔는데 록두지짐을 놓지 않은 잔치상은 잘 차린 상으로 일러주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록두지짐을 지져봅시다.

먼저 록두를 타개여 3~4시간 물에 불구었다가 깨끗하게 껍질을 벗깁니다.

껍질벗긴 록두를 망으로 보드랍게 갑니다.

지짐감에 소금을 두고 간을 맞춥니다.

록두지짐을 맛있게 지지는 요령의 몇가지가운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간을 잘 맞추는것입니다.

간을 짜거나 싱겁게 하면 록두지짐의 고소한 맛을 살릴수 없습니다. 그리고 간질을 한 지짐감을 오랜 시간이 지난후 지져내면 색이 곱지 못하게 됩니다.

지짐감 200g에 3g정도의 소금을 넣으면 좋습니다.

돼지고기 세겹살이나 비계를 삶아 길이 3. 5~4㎝, 너비 2㎝, 두께 0. 2~0. 3㎝되게 썰어 그릇에 따로 담습니다.

가열된 지짐판에 기름을 두르고 돼지고기 한점을 먼저 놓은후 그우에 국자로 지짐감을 떠서 둥그런 모양으로 펴놓습니다. 지짐판우에서 지짐을 뒤집기 전에 기름을 한번 더 바르는것도 지짐지지는 방법의 또 다른 한가지 요령입니다.

앞뒤면이 노랗게 색이 나도록 지져지면 접시에 담아냅니다.

가운데에 사각형의 돼지고기가 박힌 둥그런 모양의 새노란 록두지짐은 보기에도 얼마나 먹음직스럽습니까.

이렇게 록두지짐의 진맛을 찾아 제손으로 직접 만들어 손님들이나 집안사람들과 함께 모여 맛보는 재미나 정서도 여간 아닐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국을 방문하실 때 제가 지진 록두지짐을 맛보고싶으면 어느때라도 우리 청류관을 꼭 찾아오십시오.

청류관 료리사 오영란

구려의 정치구조에 대하여

구려는 B. C. 15세기 중엽부터 B. C. 277년까지 고조선(후조선), 부여, 진국과 함께 존재한 우리 나라 고대국가의 하나이다.

구려는 전조선의 후국으로 있다가 고조선에서 분립한 고대국가였던것만큼 정치구조에서도 전조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구려의 최고통치자는 국왕으로서 중앙과 지방의 각급 관료들과 여러 후국왕들의 우에 선 최고권력자였다. 국왕은 대대로 연나부(5부의 하나)출신의 귀족들만이 될수 있었으며 세습제에 의하여 계승되였다.

구려에는 고대부여와 마찬가지로 마가, 우가, 양가, 구가 등 여러 중앙급관리들과 그아래에 필요한 각급 관청들과 관리들이 있었으며 이와 함께 나라의 중요정사들을 협의하기 위한 통치기구로서 고위급귀족관료들인 대가들과 후왕들로 구성된 제가평의회도 있었다. 제가평의회는 본질상 귀족민주주의적협의기구로서 국왕의 지나친 전횡을 일정하게 제한하면서도 그 정치를 보좌하기 위한 노예소유자들의 독재기구였다. 또한 구려에서는 왕족출신뿐아니라 나머지 4부귀족출신들도 전국을 통치하기 위한 중앙관료들로 등용되기도 하였다.

구려는 나라의 전반적지역과 인민들에 대한 중앙집권적통치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나라의 중심지역에 5부를, 그 주변지역에는 여러 후국들을 설치하였다. 5부가운데서 가장 큰 세력인 연나부는 국왕의 직할지로 되고 나머지 4부인 관나부, 환나부, 과루부, 제나부는 해당 부들의 귀족대표자들이 후왕으로서 다스리게 하였으며 주변의 소국들은 후왕격인 소국왕들을 통하여 통치하였다. 5부와 여러 후국들로 구성된 행정단위밑에는 읍락들이 있었으며 읍락은 한개이상 또는 몇개의 자연부락, 촌락으로 이루어져있었다.

구려에는 국왕을 비롯한 노예소유자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고 노예제적질서를 유지공고화하기 위한 통치수단인 법과 군대도 있었다.

고조선(후조선)과 부여사이에 위치한 구려에서는 국왕을 비롯한 노예소유자계급이 자기들의 리익을 옹호하고 국가통치질서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법을 제정하였으며 그것은 국가권력이 강화되고 사회가 발전하는데 따라 더욱 정비되였다.

그리고 구려는 상비적인 군대를 가지고있었으며 내륙국가였던 관계로 하여 륙군이 기본이였으며 그것은 보병과 기병으로 이루어져있었다. 구려의 상비군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방위하며 노예를 비롯한 피압박대중의 반항을 진압하기 위한 폭력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수행하였다.

이처럼 우리 민족의 고대국가의 하나였던 구려는 비교적 째인 통치기구와 법, 군대 등 통치수단을 가진 노예소유자국가였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박관복

서산대사와 사명당

《묘향산의 서산대사가 그처럼 인망도 높고 학문에도 밝다지?》

서산대사의 소문을 들을 때마다 금강산에서 제노라 하던 사명당에게는 은근히 시기심이 동했다.

기골이 장대하고 사람됨이 호걸스러운데다 학문에 고명하고 신기한 도술까지 지니고있는 그는 《내 그와 한번 겨루어보리라.》고 마음먹었다.

사명당은 임진조국전쟁이 일어나기 몇해전에 드디여 길을 떠났다. 당시 바다건너에 있는 왜적들이 장차 쳐들어올것이라는 소문으로 온 나라가 뒤숭숭하기에 세상형편을 알아보는겸 묘향산의 서산대사한테도 들려보리라 마음먹었다. 그러나 그는 이 말을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다. 한것은 소문없이 남몰래 서산대사와 겨루어보자는 심산에서였다. 사명당이 황해도와 평안도를 돌아보고 바로 묘향산으로 들어설 때였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사명당은 알지 못할 어린 중에게서 인사를 받자 의아해졌다.

《네가 누구길래 나를 보고 절을 하느냐?》

《우리 스님이 대사님을 모셔오라고 해서 마중나왔소이다.》

《너의 스님이 누구길래?》

《서산대사이옵니다.》

《뭐라구? 너의 스님이 벌써 내가 오는줄을 알고있단 말이냐. 과시 소문이 날만 한 대사로구나.》

이렇게 감탄한 사명당은 단단히 잡도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린 중을 따라 서산대사가 들어있다는 금강굴로 올라갔다.

《대사님, 금강산의 사명당 인사올립니다.》

사명당은 문밖에 서서 합장하며 인사를 하였다. 그러면서 과연 서산대사가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를 살펴보았다.

서산대사의 몸집은 조그마하여 보잘것 없었으나 눈에 광채가 도는것이 록록치 않아보였다. 사명당은 첫 상면에서부터 떠보자고 먼저 말을 걸었다.

《대사님, 여기로 오다가 고운 새 한마리를 잡았는데 전 이걸 대사님께 드려야 좋을지 놔줘야 좋을지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있소이다.》

그러면서 미리 준비해가지고 오던 새 한마리를 장삼소매에서 꺼냈다.

손님을 맞으려고 밖으로 나오던 서산대사는 그 말을 듣자 걸음을 멈추고 사명당에게 대답하였다.

《대사께서 소승을 찾아오시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제가 밖으로 나가 마중해야 좋을지 아니면 안에서 모셔들여야 좋을지 알수가 없어 이렇게 망설이고있소이다.》

사명당은 그만 무안해졌다.

서산대사를 떠보려던것이 도리여 면박을 받으니 벌써 두번째로 눌리우는 위압감을 어찌할수 없었다.

《이걸 제가 대사님께 드리겠으니 나무람마시고 받아주십시오.》

그러자 서산대사가 문턱을 넘어나와 새를 받았다.

《루추한 방이지만 어서 들어가십시다.》

방안에 들어가앉은 사명당은 서산대사를 허술히 대할수 없다는 생각에 공손히 인사차림을 하였다.

《대사님의 명망이 높으시다는 소문도 들은지 오랜데다 오늘 나라에 뒤숭숭한 소문이 돌기에 한번 만나뵈옵고 의논하고저 왔소이다.》

《저도 요즘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돌기에 금강산의 대사님을 만나 앞일을 의논하고싶던차인데 몸소 이곳으로 떠나온다는것을 알고 몹시 기다렸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여 서로 앞일에 관한 대책들과 학문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었는데 사명당은 서산대사를 당해낼수가 없었다.

《대사님, 세월이 뒤숭숭해서 뜻을 같이할 사람을 찾아 예까지 왔는데 오늘 대사님을 뵙고 이야기를 나누고보니 대사님은 저의 스승이옵니다. 이미흡한 소승에게 많이 배워주십시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을 하고보니 기골이 장대한 자기가 끝내 조그마하고 체소한 묘향산의 서산대사에게 머리숙여 모시겠다고 말한것이 자못 부끄러워졌고 자존심도 상했다.

그런데 그의 속생각을 어느새 알았는지 서산대사가 좋지 않은 어조로 말하였다.

《조그마하고 초췌한 사람을 스승으로 삼는것이 부끄러우면 기골이 장대한 대사님이 제 스승이 되시구려.》

《예?》

사명당은 서산대사앞에 진정 굽히지 않을수 없었다.

《대사님, 황송합니다. 소승은 진정으로 대사님의 제자가 되겠소이다.》

이로부터 사명당은 자신을 언제나 낮추고 겸손하게 배우고 도를 닦아오다가 임진조국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서산대사를 의병대장으로 내세우고 자신은 그의 제자로 되여 왜적들과 싸워 세상에 이름을 떨치였다.

* * *

신명스러운 판단

임진조국전쟁때 있은 일이다.

1593년 2월초 수원 독산성에서 활동하고있던 3도체찰사이며 전라도순찰사인 권률이 2 300여명의 의병들과 관군을 거느리고 서울에 둥지를 틀고있는 왜적들의 숨통을 조이면서 서울에서 40리 떨어져있는 행주산성으로 이동하고있었다.

산성에 도착한 날로 권률은 의병들과 관군에게 왜적의 두목우끼다가 곧 공격해올테니 성을 급히 수축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런데 하루이틀이 지나도 적들은 잠잠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아침이였다. 의병들이 행주산성을 감도는 강으로 내려가 물을 길어오다가 떠내려오는 두개의 큰 궤짝을 발견하였다. 의병들은 잘 포장되고 울긋불긋하게 장식된 궤짝이 나타난것이 기이하여 감히 헤쳐보지 못하고 권률에게 가져다 바치였다.

권률은 궤짝을 살펴보기도 하고 그것이 떠내려온 방향을 가늠해보기도 하면서 말없이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곧 그것을 열라고 하였다.

궤짝에는 값진 비단과 희귀한 물건들이 가득 들어있었다. 서울에 둥지를 틀고있는 왜적들이 보낸것이 틀림없었다.

권률은 그 물건들을 의병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고나서 엄한 령을 내렸다. 앞으로 이런 궤짝이 나타나면 즉시로 가져다 바칠것이되 만약 령을 어기고 자의로 처리하거나 제때에 가져오지 않는 경우에는 군법에 따라 처형하겠다고 하였다. 권률의 령은 삽시에 성안팎으로 전해졌다.

다음날 저녁 해가 질무렵에 큰 궤짝 하나가 또 떠내려왔다. 의병들은 그것을 건져서 권률에게 바쳤다.

또다시 큰 궤짝을 건졌다는 소문을 들은 성안의 모든 의병들과 관군, 성안팎의 백성들이 구경하러 모여들었다. 그들은 이번엔 또 무슨 물건이 들어있을가 하는 호기심에서 그것을 빨리 열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권률은 대청안에서 나와보지도 않을뿐아니라 뜨락에 장작을 쌓아놓으라는 령을 내렸다. 의병들과 관군은 영문을 알수 없어 령대로 장작을 가져다 뜨락에 쌓아놓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그 장작우에 궤짝을 올려놓고 불을 지르라는것이였다. 그들은 궤짝의 물건들이 다 타버릴것이 아까왔으나 령을 어길수 없어 그것을 장작불우에 올려놓았다.

궤짝에 불이 당기자 웬일인지 그속에서 알아들을수 없는 짐승의 울부짖음같은 소리가 새여나왔다. 구경군들은 놀랍고 의아스러워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궤짝이 거의다 타서 스러질 때에야 뜨락에 나온 권률은 그 재무지를 들추어보라고 하였다.

재무지를 들추던 의병들과 백성들은 모두 놀랐다. 재무지속에서는 두구의 해골과 긴 칼이 나타났다.

《아니, 저것들은 자객들이 아니였소.》

《우리 대장을 해치러 보낸게 분명하오.》

그때에야 구경군들은 왜적들이 두차례 궤짝을 보낸 기도를 짐작하게 되였다.

그것은 바로 1년전에 독산성 싸움에서 권률에게 참패를 당한 우끼다가 행주산성으로 모여든 권률의 부대를 두고 골몰하던중에 우선 권률을 비롯한 장수들을 해친 다음 성을 공격하려는 《묘안》으로 꾸민 놀음이였던것이다.

《대장님, 왜적들의 이런 흉계를 어떻게 아셨나이까? 참으로 대장님은 신명스러운 판단을 하였습니다.》

한 로인이 탄복하여 하는 말이였다.

권률은 로인에게 말하였다.

《제가 무슨 신명스러운 판단을 하였겠습니까. 어리석은 우끼다가 사람을 웃길짓을 한것이지요. 첫번째 궤짝은 미끼로 보낸것이고 두번째 궤짝은 낚시로 보낸것인데 우리가 무슨 물고기라고 그 낚실 물겠소. 하하하…》

호방한 그의 웃음에 모두가 따라웃었다.

* * *

단 상

조선의 전통

어떤 가문이나 집단에 오래전부터 대를 내려오면서 물려오는 어떠한 특성인 전통,

나에게는 그 전통에 대하여 느끼게 된 계기가 있었다.

지난해 재로씨야동포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았을 때였다.

로획무기전시장에는 보통강기슭에 떠있는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도 있었다.

인민의 행복한 모습이 비껴있는 보통강물결우에 거무칙칙한 본체를 드러내고있는 《푸에블로》호,

동포들속에서 나이지숙한 한 사람이 47년전 1월 《푸에블로》호사건으로 온 세계가 들끓던 그때가 돌이켜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조선은 미제와의 대결전에서 언제나 승리해왔다. 승리의 그 전통은 영원히 이어질것이다.》

나의 생각은 깊어졌다.

일제에게 짓밟혔던 조국을 다시 찾고 인민의 행복한 생활이 펼쳐져 5년, 인민의 새 나라가 세워져 2년도 안되는 청소한 공화국을 요람기에 먹어보겠다고 조선전쟁을 일으킨 미제는 수많은 추종국가들까지 전쟁에로 내몰았지만 끝내는 항복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안되였었다.

주체57(1968)년 1월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우리 조국의 신성한 령해에서 나포되였을 때에도, 수치를 망각하고 조선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때에도 조선은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립장을 밝히였다.

하여 미제는 저들의 죄행을 인정하고 또다시 무릎을 꿇지 않을수 없었다.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은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것이라는 공화국의 립장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것을 온 세상에 뚜렷이 보여주었다.

유일초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이였지만 조선과의 대결에서만은 언제나 패배의 쓴맛을 보군 하였다.

주체58(1969)년 4월 15일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주체65(1976)년 8월 18일 판문점사건, 주체83(1994)년 12월 적직승기사건…

그보다 더욱 통쾌한것은 미국과의 핵대결전에서 조선이 련전련승한 그것이 아니겠는가.

하기에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도발자들, 침략자들에게는 무자비한 징벌을 안기고야말 불타는 의지에 넘쳐있다.

그리고 위대한 선군령장을 대를 이어 모시여 무적의 군력이 다져지는 한 승리는 영원한 조선의 전통으로 이어질것이라는 신념으로 만장약되여있다.

나는 이런 승리의 전통을 영원히 이어가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중심주제 《승리》상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본사기자 연 옥

공화국령해에 깊이 침입하여 정탐활동을 하다가 조선인민군 해군에 의하여 나포된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와 그 선원들

실컷 기다려보라는것이다

미국이 《전략적인내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고있다.

《전략적인내정책》은 미국의 오바마행정부가 《북조선정권이 더 오래갈것 같지 못》하기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정책이다. 그것도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는것이 아니라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경제적으로 봉쇄하고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는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붕괴》시기를 앞당기겠다는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핵타격수단들을 동원한 각종 전쟁연습과 군사적도발로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의 도수를 단계적으로 높여왔다.

뿐만아니라 《인권》 등을 악용하여 공화국을 헐뜯어 국제적고립을 강화하고 경제적《제재》와 《봉쇄》를 통해 공화국인민들이 스스로 주저앉도록 꾀하고있다.

미국의 이러한 《전략적인내정책》이 공화국에서 과연 성공하겠는가 하는것이다.

력대 미국의 집권자들은 공화국에 대해 적대시정책을 실시하여왔다. 돌이켜보면 조국해방전쟁(1950년-1953년)이후 미국은 공화국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끊임없이 도발을 걸어왔다.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공화국령해에서 정탐행위를 하다가 나포되였을 때에만 놓고보더라도 미국은 항공모함타격집단을 비롯한 방대한 무력을 조선동해에 끌어들이며 그 무슨 《보복》을 운운하였다. 하지만 공화국은 미국에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공화국의 초강경대응앞에 질겁한 미국은 결국 굴복하고 제먼저 꼬리를 사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1980년대에도 미국은 핵전쟁소동을 일으켰지만 그것 역시 실패를 면치 못하였다.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의 도수는 1990년대부터 더욱 높아졌다. 미국이 반공화국핵소동을 벌리며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으로 조선반도의 정세를 초긴장상태에로 몰아갔을 때에도 공화국은 준전시상태선포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선언으로 미국에 다시한번 타격을 안기였다.

그이후 미국이 경제제재와 정치군사적압력 등으로 압박의 도수를 높이였지만 공화국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갖추었으며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국제무대에 떠올랐다.

미국은 공화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할수 있는것은 다 해보았다. 하지만 미국의 핵위협과 제재, 봉쇄속에서도 공화국은 정치군사강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며 오늘은 강성국가건설이라는 웅대한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에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공화국의 전쟁억제력으로 하여 미국의 군사기술적우세는 끝장나고야말았다.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핵위협이 종식된것은 승리자가 공화국이며 패배자가 미국이라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하기에 미국회안에서도 《도대체 전략적인내정책의 기간은 얼마인가》, 《수백년, 수천년동안 인내해야 하는가》 등 대조선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가고있다.

그들은 《전략적인내정책》은 결과가 없으며 미국이 정책을 바꾸고 회담에 나서는것이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의 유일한 방도라고 주장하고있다.

현실은 미국의 《전략적인내정책》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인것으로서, 현실감각이 무딘데로부터 산생된것으로서 파멸을 면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회주의조선은 미국이 저들의 정책대로 《인내성》있게 실컷 기다려보라는것이다.

미국의 집권자들이 공화국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대시정책을 버리지 않는다면 정책적오유는 계속 범하기마련이다.

본사기자

유모아

딸이 좋아하는 과목

아버지: 네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뭐냐?

딸: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이예요.

아버지: 정말이냐? 그렇다면 이 아버지도 기쁘다.

딸: 네, 우리 수학선생님은 수업시간에 늘 외출하거든요.

미래가 없는 사회

지금 지구상의 일부 지역에서는 현시대가 자본주의에 유리한 시대인것처럼 묘사되면서 자본주의의 《영원성》에 대한 목소리가 새여나오고있다. 그러나 현실은 자본주의의 종말이 가까와오고있음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오늘 자본주의는 정치생활에서의 반동화, 정신문화생활에서의 빈궁화, 물질생활에서의 기형화로 하여 자체의 심각한 내부모순을 안고 파멸의 위기에 직면해있다. 그가운데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문제는 자본주의사회를 멸망의 길로 몰아가는 악성종양의 하나로 되고있다.

부정의와 온갖 사회악이 판을 치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국가와 사회의 관심밖에서 집도 없이 거리를 방황하다가 범죄와 자살의 길에 빠져들고있다.

지난해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약 600만명의 24살미만 청년들이 일자리도 없고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있다. 한창 배워야 할 나이의 청소년들이 한지에서 밤을 새우면서 거리를 헤매고있는것이 미국사회의 현실이다.

날이 흐를수록 우심해지는 청년실업문제는 유럽나라들에서도 큰 골치거리로 되고있다. 유럽동맹 통계국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두해전 8월에 동맹성원국들에서 25살미만 청년실업자수가 549만 9 000여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이딸리아에서는 같은해 7월에 전국적으로 24살미만 청년실업자수가 그전해 같은 달에 비해 4. 3% 더 늘어나 63만 5 000여명을 기록하였으며 그리스에서는 청년실업률이 64. 2%에 이르렀다.

극도의 인간증오와 약육강식이 판을 치는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에서 앞날에 대한 희망과 꿈이 무참히 유린당한 청소년들은 범죄의 구렁텅이에 깊숙이 빠져들어가고있다.

두해전 미국의 뉴멕시코주에서는 한 청년이 백주에 교회당에 뛰여들어 무턱대고 칼부림을 하던 끝에 4명에게 심한 부상을 입히는 범죄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다.

지금 총기류범죄는 미국청소년들속에서 하나의 《류행병》처럼 만연되고있다. 이 나라의 ABC방송과 신문 《워싱톤 포스트》는 청소년들속에서 꼬리를 물고 감행되고있는 총기류범죄에 대해 그것이 단순히 개별적인 물의 소행이라기보다 사회에 존재하는 광범한 난문제들을 반영하고있는것이라고 개탄하였다.

실태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년전 10월말 일본 도꾜에서는 21살난 청년이 녀중학생을 칼로 찔러 살해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계의 경악을 자아냈다.

이 나라에서는 비관과 절망에 빠져 자살하는 청년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일본경찰청은 2012년에 전국적으로 자살자수가 2만 7 800여명에 달하였는데 자살자의 거의 절반이 20대청년들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반인민적인 사회제도가 존재하는 한 자본주의나라 청년들은 비참한 운명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원래 자본주의는 그 계급적 본성으로 하여 기형적인 물질생활과 더욱 빈궁화되는 정신문화생활사이의 불균형,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악화되여가는 정치생활사이의 불균형을 극복할수 없다. 거기에 심각한 청년문제까지 안고있으니 자본주의는 말그대로 자기의 미래조차 없는 몰락한 운명에 처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청년문제를 옳바로 해결하는것이 곧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관건적인 문제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하기에 지난해 여름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외국의 한 인사는 자기의 소감을 글에 담으면서 이렇게 썼다.

《사회주의가 미래로 향한 아이들의 밝은 눈빛이라면 자본주의는 래일을 잃은 김빠진 페인의 흐려진 동공이고 사회주의가 흰 파도를 헤가르며 내젓는 아이들의 싱싱한 두팔이라면 자본주의는 마약중독자의 피기가신 늘어진 두팔이다.》

오늘 자본주의는 무덤으로, 무덤으로만 향해가고있다.

윤흥기

고화

《 금 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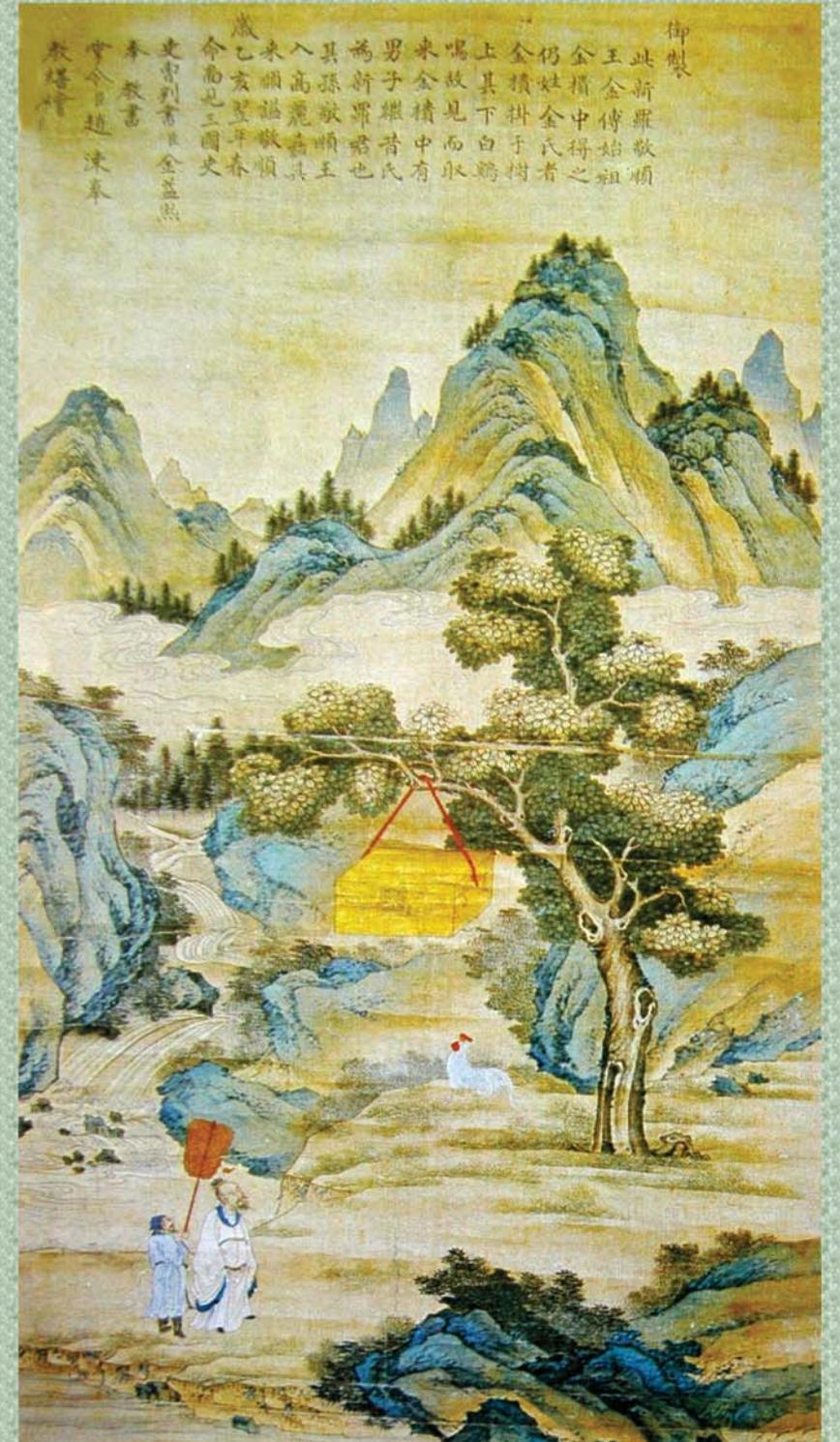
《금궤》는 조속(자; 희온, 호; 창강, 창추, 취추, 추옹)의 그림이다. 그는 리징, 김명국과 더불어 17세기의 3대화가로 꼽히였다.

그는 시를 잘 짓고 글씨도 잘 썼으며 산수화와 화조화, 특히 까치를 비롯한 새들을 잘 그렸다. 어려서부터 책읽기를 무척 즐겨하였다. 성장하여서는 뛰여난 학식으로 사람들을 놀래웠으며 품성이 남달리 대바르고 지조가 굳었다.

《금궤》는 신라 김씨의 조상인 김알지가 금궤에서 나왔다고 한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설화내용을 화면에 옮긴것이다.

하늘로부터 드리운 구름이 산허리를 휘감고 황금궤짝이 나무가지에 걸려있는데 궤짝아래에서는 흰닭이 울고있으며 그앞에는 숲속에서 나는 밝은 빛을 보고 그리로 온 호공이 금궤를 올려다보고있다. 옛 설화를 다룬 그림이기는 하지만 조국산천의 아름다움을 화면에 담은 그림임에는 틀림없다.

그림의 주제가 특이하기도 하거니와 주로 묵화만을 그린 조속의 뛰여난 채색화솜씨를 보여주는것으로 하여 하나의 귀중한 자료로 된다.

* * *

련광정의 겨울　　본사기자 박창복

관서팔경의 하나로 예로부터 경치가 좋아 《제일루대》, 《만화루》 등으로 불리워온 련광정,

나라의 국보로, 인민들의 즐거운 문화휴식터로 되고있는 련광정은 부근의 문화유적, 유물들과 새로 일떠선 창전거리와 더불어 아름다운 그 모습 더욱더 빛나고있다.

ISSN 1727-9062
9 771727 90600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ㄱ—482148
http://www.naenara.com.kp(조문, 로문)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